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최 배 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주 합죽선 문화의 전승과 변화 연구

2024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한국문화콘텐츠전공  
장 수 경

# 전주 합죽선 문화의 전승과 변화 연구

최 배 영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한국문화콘텐츠전공

장 수 경



## 논문개요

본 논문은 전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 중 하나인 합죽선을 재조명하는 관점에서 전주 합죽선 문화의 전승과 변화를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0일까지 부채에 관한 사료, 단행본, 논문, 신문, 국내 박물관(예: 국립중앙박물관, 부채박물관) 및 도서관(예: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자료 조사를 시행하여 합죽선에 대한 문화적 고찰을 이행하였다. 또한 2023년 7월 17일부터 2023년 10월 30일까지 전주의 김동식 선자장(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과 이신입 낙죽장(전북무형문화재 제51호)을 중심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합죽선 문화가 전승되고 변화되어온 양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면접조사를 통해 1950년대 이후 전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합죽선 장인들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였다.

먼저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전주 합죽선에 대한 문화적 고찰을 이행한 결과, 조선시대에 부채는 단오절선이라고 하여 왕이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선물이었다. 이를 위해 공조에는 경공장을, 전라도와 경상도에는 선자청을 두어 선자장으로 하여금 부채를 생산하여 공납하게 하였다. 특히 부채 중 접선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조정에 공납하고 이를 단오절선이라는 이름으로 왕이 하사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접선 중 하나인 합죽선은 1794년 정조실록에 처음 명칭이 등장해 18세기 중엽부터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합죽선이 일반 접선과 다른 점은 부챗살에 있었다. 일반 접선은 왕대의 속대로 부챗살을 만들지만 합죽선은 얇게 발라낸 왕대의 길대 2장을 민어의 부레풀과 아교를 섞어 만든 풀로 붙여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면 습기에 강하여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부챗살의 탄성이 좋아져 바람의 강도가 커졌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는 식민정책으로 말살되었는데 부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합죽선은 만드는 과정의 정교함과 어려운 기술로 인하여 조선 부채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고 특히 전주의 합죽선은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다음으로 전주 합죽선 문화의 전승 및 변화 양상에 관한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첫째, 무형문화재의 계보와 전승 실태에 있어 현재 합죽선을 만드는 선자장과 낙죽장은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수자와 전수자를 양성하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이 가게를 통해 합죽선 제작 기술을 전수하여 전승하고 있었다.

둘째, 합죽선 문화를 이어온 장인들의 계보를 조사하였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전통공예는 단절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많았다. 현재의 전주 합죽선 문화는 1950년대 이후 활동했던 이름없는 많은 장인들에 의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기에 그들의 성명과 계보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었다.

셋째, 합죽선 문화의 변화 실태에 있어 재료 공급, 작업환경, 경제적인 문제로 합죽선의 명맥을 잇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선자장과 낙죽장을 비롯하여 합죽선을 만드는 장인들은 합죽선의 원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전래의 도구들을 복원해 사용하면서 현대의 새로운 도구들도 제작 과정에 맞게 활용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전주 합죽선은 무형의 문화인 장인들을 통해 전수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합죽선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하는 한국의 문화유산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방법 .....	4
1) 문헌연구 .....	4
2) 면접연구 .....	5
II. 전주 합죽선에 대한 문화적 고찰 .....	8
1. 전통 부채 .....	8
1) 부채의 개념 .....	8
2) 부채의 분류 .....	10
3) 부채의 상징성 .....	15
2. 전주 합죽선 .....	19
1) 합죽선의 역사 .....	19
2) 합죽선의 구조 .....	22
3) 합죽선의 종류 .....	24
4) 합죽선의 제작 기관 .....	27
5) 합죽선의 변천 .....	30
3. 선행연구 .....	34

Ⅲ. 전주 합죽선 문화의 전승 및 변화 양상 .....	37
1. 무형문화재의 계보와 전승 .....	37
1) 김동식 선자장 .....	38
2) 이신입 낙죽장 .....	47
2. 전주 합죽선 문화의 장인 계보 .....	52
1) 1950년대 이후의 장인들 .....	53
2) 현재의 장인들 .....	56
3. 전주 합죽선 문화의 변화 실태 .....	58
1) 합죽선의 형태와 재료 .....	58
2) 합죽선의 제작과 도구 .....	63
Ⅳ. 결론 및 제언 .....	68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표 목 차

<표 I -1> 면접대상자 .....	6
<표 II -1> 예조에서 상정한 부채 하사 품목 .....	13
<표 II -2> 만기요람을 통해 본 조선 왕실에 공납된 부채의 양 .....	14
<표 II -3> 1920년대 직업별 1일 임금 통계 .....	32
<표 III-1> 1950년대 이후 전주 지역의 합죽선 장인들 .....	54
<표 III-2> 현재의 장인들 .....	56
<표 III-3> 합죽선의 크기, 형태 및 재료 변화 .....	59
<표 III-4> 합죽선의 작업 방법과 도구의 변화 .....	63

## 그림 목 차

〈그림 II-1〉 부채 유물 .....	9
〈그림 II-2〉 김홍도의 수하탄주도 .....	18
〈그림 II-3〉 정선의 독서여가도 .....	18
〈그림 II-4〉 채용신의 황헌 초상 .....	18
〈그림 II-5〉 표정선 .....	21
〈그림 II-6〉 합죽선의 구조 및 명칭 .....	23
〈그림 II-7〉 반죽선과 대모선 .....	25
〈그림 II-8〉 백선과 칠선 .....	26
〈그림 II-9〉 어두선과 승두선 .....	27
〈그림 II-10〉 1872년 전주 지도 .....	29
〈그림 II-11〉 1921년 전라북도 청사 .....	30
〈그림 II-12〉 1910년 《대한매일신보》의 합죽선 하사에 대한 기사 .....	30
〈그림 II-13〉 1924년 《매일신보》의 전주 합죽선에 대한 기사 .....	31
〈그림 II-14〉 용산공작주식회사의 조선선 .....	33
〈그림 III-1〉 김동식 선자장 .....	38
〈그림 III-2〉 라학천 선자장 .....	39
〈그림 III-3〉 김동식 선자장의 계보 .....	41
〈그림 III-4〉 1950년대 석소마을 띄집 .....	42
〈그림 III-5〉 이수자들과 작업하는 김동식 선자장 .....	45
〈그림 III-6〉 김동식 선자장의 합죽선 .....	46
〈그림 III-7〉 이신입 낙죽장의 계보 .....	47

<그림 Ⅲ-8> 이기동 선자장 .....	48
<그림 Ⅲ-9> 이신입 낙죽장 .....	49
<그림 Ⅲ-10> 이기동 선자장의 합죽선 .....	51
<그림 Ⅲ-11> 이신입 낙죽장의 합죽선 .....	51
<그림 Ⅲ-12> 선두의 재료 .....	60
<그림 Ⅲ-13> 사북 1 .....	61
<그림 Ⅲ-14> 사북 2 .....	61
<그림 Ⅲ-15> 분죽 .....	62
<그림 Ⅲ-16> 맹종죽 .....	63
<그림 Ⅲ-17> 합죽선 제작 도구 1 .....	64
<그림 Ⅲ-18> 합죽선 제작 도구 2 .....	65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통문화는 오랜 세월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 속에 녹아 있는 다양한 문화와 그 표현물로 유·무형의 유산이다. 전통문화 유산이 중요한 것은 현대인의 삶의 기저에 전통의 문화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맞게 이어받으려면 유·무형 전통문화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조선의 문화와 전통은 많이 왜곡되고 사라지게 되었는데 부채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채 가운데 합죽선의 경우 고유한 기술과 경험으로 문화적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장인들에 의해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고 1970~1980년대에는 전성기를 맞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값싼 중국 부채의 유입과 여러 냉방 기기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합죽선은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현재는 합죽선을 만드는 장인들의 수는 손에 꼽을 정도이고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조선에서 부채, 접선은 여름을 나는 사대부들의 필수품이었다. 부채의 사용이 보편화된 조선 시대에는 계층과 빈부 그리고 성별에 따라 부채의 형태와 만드는 재료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조선에는 단오진선(端午進扇)의 풍속이 있어 해마다 단오를 앞두고 부채가 공납으로 조달되었다. 왕은 직급과 신분에 따라 부채를 하사하고 부채를 하사받은 신하는 또 친척과 지인들에게 그 부채를 나누어주었다. 부채는 곧 왕의 은혜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였던 것이다. 부채는 대내외적 외교선물로도 사용되어졌다. 또한 사대부들은 부채에 시·서·화를 넣었는데 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화적 표출이기도

했다.

부채의 주재료는 골격과 부챗살을 만드는 대나무와 선면(扇面)<sup>1)</sup>을 바르는 종이이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대나무의 주산지이다. 선면을 만드는 한지는 남원, 전주 등 전라도 지역이 대표적 산지이며, 경상도도 지역마다 지소(紙所)<sup>2)</sup>가 있어 종이를 공급하였다. 이에 부채를 생산하는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은 조정에서 사용하는 부채의 공급을 대부분 전담하여 경상도는 통제영의 선자방(扇子房)에서, 전라감영은 전주의 선자청(扇子廳)에서 주로 제작하였다. 전라감영은 남원과 담양의 대나무 공급과 전주 한지의 맥이 이어지면서 조선 말기까지 선자청이 존재하였다.<sup>3)</sup>

오늘날에 있어서도 부채는 전주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공예품이다. 특히 접을 수 있는 부채인 접선의 하나인 합죽선이 그러하다. 일제강점기의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전라도 전주산 합죽선의 유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1924년 3월 17일자 《매일신보》 2면에는 전라남북도에서 제작된 부채가 우리나라 전체 산량(産量)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중 전주산 합죽선이 가장 우수하다<sup>4)</sup>고 보도되었다. 1939년 6월 2일 자 《매일신보》 4면에도 합죽선은 전라도 전주의 것이 제일<sup>5)</sup>이라고 언급되었다.

전통 부채에 관한 연구는 1937년 식민지 문화통치의 목적으로 조선총독부에서 조사를 시행한 이래 1990년대까지 서너 권의 저서들이 출간되었을 뿐이다.<sup>6)</sup> 2000년대 이후 부채의 활용에 대한 민속 교육적 접근, 부채의 한국문학

1) 선면(扇面)은 부채의 거죽으로 부챗살에 종이나 직물 등을 붙여낸 면이다.

2) 지소(紙所)는 고려시대와 조선 시대에 지장(紙匠)들이 모여 살며 나라에 공물로 바치는 종이를 만들던 구역이다.

3) 심호남(2017), 조선전기 부채에 대한 실증적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46, p.174.

4) 국립중앙도서관, 《매일신보》, 1924년 3월 17일자 2면. www.nl.go.kr.

조선합죽선과 단선은 실로 내지제품에 비하여 기질의 견관 바로 외국인 유람객등이 진중하는 바로 ... 전라북도의 전주산이 특히 양호하며.

5) 국립중앙도서관, 《매일신보》, 1939년 6월 2일자 4면. www.nl.go.kr.

합죽선으로는 전라도 중에서 전주의 것을 제일로 치는데 원만한 것이면 다 전라도 것인 만큼 그 고장 물건이 전 조선에 퍼져 있습니다.

6) 장경희(2022), 조선시대 왕실용 부채와 선장의 직역 변화 및 제작실태, 동방학 47. p.223.

적 심상, 조선시대 지방관의 선물정치와 부채, 조선후기 단오부채(절선)의 생산과 가치 순환, 조선전기 부채에 대한 실증, 한국 전통 부채의 역사와 디자인, 18~19세기 대구 지역의 장인 직역, 조선시대 왕실용 부채와 선장의 직역 변화 및 제작 등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합죽선에 대한 연구나 이것을 만들었던 장인들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현재 조선시대 선자청이 있던 전주는 합죽선을 대표하는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전주 합죽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첫째는 합죽선에 대한 총체적 연구가 없다는 점이다. 2015년 선자장이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로 지정되면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편찬한 책<sup>7)</sup> 이외에는 다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둘째는 해방 이후 전라북도 전주 지역에서 합죽선을 만들어온 장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국가나 시·도의 무형문화재로 선정되지는 않았기에 이름도 없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 이들에 관한 기록이 정리된 바가 없다. 합죽선 한 자루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사람, 재료, 지식, 기술, 시대적 상황과 만든 이의 정신까지 장인의 삶이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유형의 문화재는 무형의 문화재인 사람이 없다면 존재하지 못한다. 유형문화의 전승력은 무형문화의 전승력에 의해서 발휘되는 것이다.<sup>8)</sup> 어렵게 명맥을 이어온 합죽선의 기저에 이를 만들어왔던 장인들이 무수히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인들의 계보 조사는 선자장과의 면담을 통해 조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나이가 들어 사라지면 장인들의 존재 또한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리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주 합죽선 문화의 전승과 변화를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전주 합죽선에 대한 문화적 고찰을 이행한 후, 무형문화재의 계보와 전승, 합죽선 문화의 장인 계보 그리고 합죽선 문

7) 국립무형유산원(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민속원, pp.1-191.

8) 임재해(2007), 무형문화재의 가치 재인식과 창조적 계승, 한국민속학 45, p.237.

화의 변화 실태를 밝히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 1) 문헌 연구

본 연구에서는 부채와 합죽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0일까지 사료, 단행본, 논문, 신문, 국내 박물관(예: 국립중앙박물관, 부채박물관) 및 도서관(예: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대표적인 문헌 자료 중 사료로는 조선시대의 국가 기록인 조선왕조실록과 경국대전이 있다. 당시의 풍속을 기록한 자료로는 황현(1855-1910)의 매천야록, 김매순(1819)의 열양세시기, 홍석모(1849)의 동국세시기, 서유구(1835)의 임원십육지 등이 있다. 단행본으로는 김삼대자(1985)의 부채의 기원과 변천, 최상수(1981)의 한국 부채의 연구, 금복현(1990)의 전통부채, 장경희(2002)의 유럽과 동아시아 부채, 국립무형유산원(2017)의 국립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등이 있다.

논문 자료로는 강현모(2005)의 부채의 활용에 대한 민속 교육적 접근, 김창룡(2005)의 부채의 한국문학적 심상, 김혁(2007)의 조선시대 지방관의 선물정치와 부채, 김혁(2010)의 조선후기 단오부채(절선)의 생산과 가치 순환, 심호남(2017)의 조선전기 부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엄재수(2019)의 한국 전통부채의 역사적 고찰 및 디자인 접근에 관한 연구, 김동영(2021)의 18~19세기 대구 지역의 장인 직역 파악과 변화 양상, 장경희(2022)의 조선시대 왕실용 부채와 선장의 직역 변화 및 제작실태 등이 있다.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자료로는 임돈희와 로저 L.자넬리(2005)의 무형문화재

의 전승실태와 개선방안, 임재해(2007)의 무형문화재의 가치 재인식과 창조적 계승, 임재해(2008)의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방향의 재인식, 함한희와 정성미(2012)의 전라북도 무형문화유산의 목록화와 현황분석, 천진기(2017)의 전통 공예기술의 전승체계에 관한 현장적 접근, 이현정(2021)의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치창출, 조성실(2022)의 무형문화유산 전시의 분석과 방향: 전통공예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이들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전통 부채의 개념, 분류, 상징성을 확인하고 전주 합죽선의 역사, 구조, 종류, 제작 기관, 변천에 대해 고찰하였다.

## 2) 면접연구

본 연구에서는 면접조사를 통해 전주 합죽선 문화의 전승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접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전라북도 전주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무형문화재나 시도무형문화재인 선자장 혹은 낙죽장이다. 둘째, 가계를 포함한 전수 계보가 3대 이상인 장인으로 전통의 합죽선 기술을 이어받고 있어야 한다. 셋째, 현재 합죽선을 만들고 있으며 그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장인으로 한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토대로 <표 1-1>에서와 같이 선자장 2인과 낙죽장 1인, 이수자 2인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위해 연구자가 사전에 개별적으로 통화해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면접 참여 의사를 연구동의서(부록 1)로 확인한 후 2023년 7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대면면접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면접의 과정은 반구조화면접으로 두 갈래로 진행하였다. 첫번째 면접조사(부록 2)는 김동식 선자장과 이신입 낙죽장을 대상으로 각각 무형문화재의 전수 계보와 합죽선 제작 기술의 전승 현황에 대해 질문하였다.

두번째 면접조사(부록 3)는 김동식 선자장, 노덕원 선자장, 김대성과 장현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1950년대 이후 합죽선 장인들의 계보에 관해 질문했다.

<표 1-1> 면접대상자

구분	성명	출생 년도	성별	거주지	대표 경력	면접 날짜
1	김동식	1943	남	전주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2015. 07. 08.)	2023년 7월 17일
						2023년 7월 21일
						2023년 9월 5일
						2023년 9월 6일
						2023년 10월 30일
2	노덕원	193*	남	전주	선자장 1957-2022년에 활동	2023년 7월 17일
3	김대성	197*	남	전주	국가무형문화재 선자장 이수자 (2019. 05. 17.)	2023년 7월 17일
						2023년 7월 21일
						2023년 9월 5일
						2023년 9월 6일
						2023년 10월 30일
4	장현정	197*	여	전주	국가무형문화재 선자장 이수자 (2023. 10. 17.)	2023년 7월 17일
						2023년 7월 21일
						2023년 9월 5일
						2023년 9월 6일
						2023년 10월 30일
5	이신입	1960	남	전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1호 낙죽장 (2013. 10. 25.)	2023년 9월 4일
						2023년 9월 6일
						2023년 10월 30일

면접 횟수로 김동식 선자장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전주시 삼천동에 위치한 자택이자 공방인 동성공예에서 이루어졌다. 노덕원 선자장과는 2023년 7월 17일에 면접을 이행하였다. 김대성 이수자와 장현정 이수자는 5회의 면접에 참여하였다. 이신입 낙죽장은 2023년 9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3회에 걸쳐 전주시 대성동에 위치한 자택이자 공방인 영진공예에서 면접이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면접 시 개별 면접대상자의 응답을 녹음하고 이를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으로는 첫째, 국가무형문화재인 김동식 선자장과 이신입 낙죽장의 전수 계보와 전승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전주 합죽선 문화의 장인 계보를 1950년대 이후에 활동했던 작고 장인들과 현재의 장인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셋째, 전주 합죽선 문화의 변화 실태를 합죽선의 형태와 재료, 제작과 도구로 구분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면접대상자들로부터 논문에 실명을 사용해도 된다는 점에 대한 동의서(부록 1)를 받고 내용을 기술하였다.

## II. 전주 합죽선에 대한 문화적 고찰

### 1. 전통 부채

#### 1) 부채의 개념

부채의 한자어는 ‘선(扇)’이다. 집이나 문(門)을 뜻하는 ‘지게문 호(戶)’자에 날개를 뜻하는 ‘깃 우(羽)’자가 합해서 이루어진 글자로 ‘집 안에 있는 날개’라는 뜻이다. 이는 부채의 기원이 새의 깃털에 있음을 말해준다. 부채는 순우리말로 손으로 부쳐서 바람을 일으키는 ‘부치다’의 ‘부’자와 가는 대나무 또는 도구라는 뜻의 ‘채’자가 합쳐진 단어이다.

‘부채’라는 용어가 기록된 문헌으로는 계림유사(鷄林類事)<sup>9)</sup>, 두시언해(杜詩諺解)<sup>10)</sup>,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sup>11)</sup> 등이 있다. 석봉천자문(石峯千字文)<sup>12)</sup>에서는 “선(扇)”을 “부채 선”으로 지칭하였다. 이들 기록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부채는 한자어 외에도 순우리말로도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부채 유물은 이집트 투탄카멘 왕(B.C.1361~B.C.1352)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타조 깃털을 붙인 플라벨룸(flabellum)이다[그림 II-2

9) 계림유사(鷄林類事)는 1103년 중국 북송(北宋)의 손목(孫穆)이 고려에 사신으로 다녀간 후 고려의 풍속, 제도, 언어 등을 기록한 건문록으로 여기에는 “선왈발채(扇曰李采)” 즉 부채는 발채로 기록되었다.

10) 두시언해(杜詩諺解)는 성종 21년(1481) 중국 당나라 두보의 시를 우리말로 번역한 시집으로 “고추수화선(高秋收畫扇)”을 “노푼 ㄱ물ㅎㅣ 그룬 부채를 ㄱ초고”로 번역하였다.

11)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는 숙종 3년(1677년) 박통사(朴通事)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간행한 중국어 학습서로 여기에서는 “타선자(打扇子)”를 “부채질하였노라”로 번역하였다.

12) 천자문(千字文)은 중국 남북조시대에 주흥사(周興嗣, 470~521)가 쓴 것이다. 선조 16년에 어명으로 당대 명필가였던 석봉(石峯) 한호(韓濩, 1543~1605)가 글씨를 쓰고 『천자문』에 석(釋: 풀이)과 음(音)을 달아 1583년에 간행된 것을 석봉천자문(石峯千字文)이라고 한다.

13) 금복현(1990), 전통부채, 대원사, p.10.

의 (1)과 (2)]. 한편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부채 유물은 경남 의창군 다호리의 고분에서 출토된 옷칠 부채 자루로 B.C 3-4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자루에는 새의 깃털을 꽂는 12개의 구멍이 있다. 이를 통해 기원전 3~4세기에 이미 우리나라에 부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II-1의 (3)과 (4)].



(1) 투탕카멘의 황금깃털부채  
출처: <https://blog.naver.com/love2822/>



(2) 투탕카멘 황금깃털부채 유물의 복원품  
출처: <https://blog.naver.com/rosejam1/>



(3) 다호리 고분 출토 부채 자루  
출처: [www.kyeong.com](http://www.kyeong.com)



(4) 다호리 고분 출토 부채 복원품  
출처: [www.museum.go.kr](http://www.museum.go.kr)

<그림 II-1> 부채 유물

## 2) 부채의 분류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부채는 그 형태에 따라 부채 자루가 달린 단선(團扇)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접선(摺扇)으로 대별할 수 있다.

### (1) 단선

단선(團扇)은 원선(圓扇), 둥근 부채, 방구(반구) 부채라고도 한다. ‘방구(方球)’란 둥글다는 뜻으로 방패연의 둥근 구멍을 방구멍이라 하고 둥근 모양의 종을 방울이라 하듯이 둥근 부채를 방구 부채라고 하는 것이다.

단선은 부챗살이 손잡이의 중심에서부터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이 마치 아침 햇살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띠고 있다. 부챗살은 자루 부분에서 모이는데, 윗부분은 얇고 자루를 박은 부분은 튼튼해야 바람이 잘 난다. 대표적인 단선으로는 오엽선, 미선, 태극선, 팔덕선 등이 있다.

오엽선(梧葉扇)은 오동잎 모양을 본 떠 만든 것으로 기본적인 형태에서 응용한 여러 모양이 있으며 부챗살을 구부려 만든 것도 있다. 미선(尾扇)은 조류나 어류의 꼬리를 본 떠 만든 것으로 세미선(細尾扇)<sup>14</sup>과 통영 미선<sup>15</sup>이 유명하다. 태극선(太極扇)은 태극 문양을 오려 붙이거나 그려서 장식한 부채로 선면 중앙에 작은 크기의 태극 문양을 붙인 알 태극선, 선면 전체를 태극 문양으로 메우고 가운데 알 태극을 두어 이중으로 만든 이중태극선, 까치태극선<sup>16</sup> 등이 있다. 팔덕선(八德扇)<sup>17</sup>은 유용한 여덟 가지 용도로 사용된

14) 세미선은 대오리를 가늘게 하여 촘촘하게 많이 놓고 선면 위 가운데가 파인 것으로 전라도 나주에서 많이 만들었으므로 나주세미선이라고도 한다.

15) 미선은 경남 통영에서 많이 만들어진 부채로, 부챗살은 평범하나 자루의 조각이 특이하고 선면이 길쭉한 것이 특징이다.

16) 까치태극선은 선면을 X자로 나눈 뒤 청색, 황색, 홍색 등으로 색지를 붙이고 가운데 태극 문양을 넣은 부채이다.

17)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은 임하필기(林下筆記)에서 부채의 팔덕(八德)에 대해 ‘첫째 바람을 일으키고, 둘째 파리와 모기 등을 쫓고, 셋째 덮개로도 쓰며, 넷째 햇빛을 가릴 수 있고, 다섯째 불을 피울

다고 해서 팔용선이라고도 한다. 이는 부챗살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쓰임새가 있어 주로 하층민이나 농가에서 사용하였다. 재료도 부들이나 왕골, 대나무 껍질, 옥수수 속껍질 등 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용도로 모양이나 재료를 다르게 만든 별선(別扇)이 있다. 그 중 윤선(輪扇)은 차바퀴처럼 둥근 부채로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햇볕을 가리는 일산(日傘)의 기능이 더 크다. 또한 크기가 더 큰 것은 대륜선, 변죽에 화각 장식을 넣은 화각 윤선, 무당이 사용하는 무당 윤선으로 분류된다.<sup>18)</sup>

## (2) 접선

접선(摺扇)은 순우리말로 쥘부채라고 하는데 본래의 이름은 취두선(聚頭扇)이다. 주로 대나무 부챗살에 한지를 선면(扇面)으로 붙여 펼쳐서 바람을 일으키는 접선은 바람을 받는 면이 넓고 부챗살의 탄력성으로 고요하면서도 바람의 세기가 크다. 180도로 활짝 펼쳐지는 접선은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다. 중국이나 일본의 접선은 부챗살이 10~20개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접선은 그 개수가 40~50개 정도에 이른다. 접선 가운데 가장 고급으로 여겨진 것은 백접선(白摺扇)<sup>19)</sup>이다. 이는 부챗살이 50개이면 100번을 접어야 한 데서 그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살이 많은 접선을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백접선은 왕실이나 고급 관원의 예단으로만 사용되었다.<sup>20)</sup>

접선은 고려시대에 등장하는데 이에 관한 기록은 도화견문지(圖畫見聞誌),

때 바람을 일으키며, 여섯째 들에서는 깔고 앉아 깔판으로 쓰고, 일곱째 청소할 때 쓰레받기 대응으로 쓸 수 있고, 여덟째 물건을 머리에 이고 갈 때 파리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 기술했다 (심호남, 2017, 조선전기 부채에 대한 실증적 연구, p.179.)

18) 금복현(1990), 전통부채, 대원사, p.75.

19) 문헌에 등장하는 백접선의 정확한 명칭은 오십죽백접선(五十竹白貼扇)이며 오십살백접선으로도 부른다. 백접의 백(白)은 종이와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흰 종이임을 뜻한다. 조선 초기에는 왕실의 직계만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부귀한 양반들도 썼다.

20) 장경희(2022), 조선시대 왕실용 부채와 선장의 직역 변화 및 제작실태, 동방학 47, p.242.

화계(畫繼),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등에 남아 있다. 도화견문지(圖畫見聞誌)는 중국 북송(北宋)의 화가이자 미술평론가였던 곽약허(郭若虛)가 1080년경에 저술한 책으로 고려의 사신 최사훈(崔思訓)으로부터 ‘접첩선(摺貼扇)을 선물 받았다’고 기술되어 있다.<sup>21)</sup> 화계(畫繼)는 중국 남송(南宋)의 등춘(鄧椿, 1074~1167)이 쓴 회화이론서로 여기에는 ‘금광죽으로 자루를 만들었는데 마치 시정(市井)에서 만든 접첩선(摺疊扇)과 같으나 정교하고 치밀하여 중국의 것이 미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은 송나라 사신이었던 서공이 1123년 고려를 다녀간 뒤에 문물을 기록한 견문록으로 ‘백접선은 대나무를 엮어서 뼈대를 만들고 등지(藤紙)<sup>22)</sup>를 재단하여 덮어 씌웠다’고 하였다.<sup>23)</sup>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백접선이 고려 시대에 널리 알려진 부채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의 접선에 대한 기록은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의 단오조에 나타난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 시대의 영향을 이어받아 단선이 접선보다 격이 높게 여겨졌다. 권근(權近 1352~1409)의 양촌집(陽村集)<sup>24)</sup>에는 부채를 시제로 삼은 시 8수(首)가 들어 있어 조선 초기에 사용되었던 부채의 종류와 이를 선물로 주고받았던 풍습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sup>25)</sup>

<표 II-1>은 태종 18년(1418년) 예조에서 상정한 부채 하사 품목이다. 이를 보면 신분에 따라 부채의 격을 정하고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권위의 상징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sup>26)</sup>

21) 곽약허 저, 박은화 역(2005), 도화견문지, 시공사시공아트, p.588.

22) 등지(藤紙)는 당나라 종이의 한 종류이다.

23) 서공 저, 조동원 외 역(2006), 고려도경, 황소자리, pp.365-366.

24) 양촌집(陽村集)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자 학자인 권근의 시문집이다. 모두 4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근의 둘째 아들 권도(權蹈)가 세종(1418-1450) 초에 편찬. 간행하였다.

25) 김삼대자(1985), 부채의 기원과 변천, 미술자료 36, 국립중앙박물관, p.33.

26) 태종실록 권 35, 태종 18년 4월 28일. 예조에서 상정한 부채 하사 품목.

戊申/禮曹詳定各品扇子, 一二品粉紅紈圓扇, 三四品藍苧圓扇, 五六品 鶴翎扇, 參外白摺扇.

〈표 II-1〉 예조에서 상정한 부채 하사 품목

품계	하사된 부채 명칭	특징
1,2품	분홍환원선(粉紅紈圓扇)	붉은빛 비단 둥근 부채(단선)
3,4품	남저원선(藍苧圓扇)	쪽빛 모시 둥근 부채(단선)
5,6품	학령선(鶴翎扇)	학의 깃털로 만든 부채(단선)
그 외	백접선(白摺扇)	흰색 짚부채(접선)

왕족들이 사용하는 부채는 귀한 물건으로 그 가치가 남달랐다. 부채에 칠을 하여 비용이 많이 들어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태종 10년(1410) 실록에는 “전칠(全漆)<sup>27)</sup>은 이어대기 어려운 물건인데, 각 전(殿)에 해마다 바치는 접선(摺扇)에 모두 칠(漆)을 써서 국가의 용도를 허비하니” 라고 기록되었다. 성종 23년(1492)에는 “단오 때 진상하는 부채는 비단에 주칠(朱漆)<sup>28)</sup>을 하였는데, 다만 사치스럽기만 하고 실용 가치가 없으니 지금부터는 양 대비전에 바치는 것 외에는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 는 기록이 남아 있어 왕실에서는 칠을 한 부채가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29)</sup>

조선 후기에 조정에 공납한 부채의 종류와 양을 알 수 있는 문헌 자료가 많지는 않으나 1808년 국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과 사용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편찬한 만기요람<sup>30)</sup>의 채용편을 통해 왕실에 공납된 부채의 종류와 그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2〉를 살펴보면 왕실에는 주로 40살이나 50살의

27) 전칠(全漆)은 옷칠을 의미한다.

28) 주칠(朱漆)은 주(朱)라 불리는 일종의 도료를 칠 재료와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붉은색을 내는 도장법이다.

29) 심호남(2017), 조선전기 부채에 대한 실증적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46, p.187.

30) 만기요람(萬機要覽)은 1808년에 서영보, 심상규 등이 왕명에 의해 지어 올린 책으로 채용편(財用篇)과 군정편(軍政篇)으로 되어 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에 이르는 조선왕조의 제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다. 채용편의 권 1은 공상(供上)과 각공(各貢)으로 나누어 궁중의 연간 소요 경비를 기술하고 있다.

백반첩선(白斑貼扇)<sup>31)</sup>, 백첩선(白貼扇)<sup>32)</sup>, 주반사첩선(朱班紗貼扇)<sup>33)</sup>이 공납되었다. 또한 불을 피우고 밥을 짓거나 밥을 식힐 때 사용되던 부채를 식선(食扇)이라고 하여 왕실의 궁녀들이 사용했던 부채의 용도도 짐작할 수 있다.

〈표 II -2〉 만기요람을 통해 본 조선 왕실에 공납된 부채의 양

구분	부채의 양
대전(大殿)	50살 백반첩선(五十竹白斑貼扇) 1자루 40살 백반첩선(四十竹白斑貼扇) 2자루 40살 백첩선(四十竹白貼扇) 100자루 식선(食扇) 2자루
중궁전(中宮殿)	50살 주반사첩선(五十竹朱班紗貼扇) 1자루 40살 백반첩선(四十竹白斑貼扇) 2자루 40살 백첩선(四十竹白貼扇) 40자루 식선 2자루
왕대비전(王大妃殿)	50살 주반사첩선(五十竹朱班紗貼扇) 1자루 40살 백반첩선(四十竹白斑貼扇) 2자루 40살 백첩선(四十竹白貼扇) 80자루 식선 2자루
혜경궁(惠慶宮) <sup>34)</sup>	50살 주반사첩선(五十竹朱班紗貼扇) 1자루 40살 백반첩선(四十竹白斑貼扇) 2자루 40살 백첩선(四十竹白貼扇) 80자루 식선 2자루
가순궁(嘉順宮) <sup>35)</sup>	50살 주반사첩선(五十竹朱班紗貼扇) 1자루 40살 백반첩선(四十竹白斑貼扇) 2자루 40살 백첩선(四十竹白貼扇) 40자루 식선 2자루

출처: 국립무형유산원(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민속원, pp.51-52.

31) 50살 백반첩선은 부챗살이 50개이고 반죽으로 변죽을 만든 부채이다. 반죽은 대 표면에 얼룩점이 있는 대나무이다.

32) 백첩선은 흰 종이를 발라 만든 접선이다.

33) 주반사첩선은 비단으로 선면을 하고 붉은색을 칠한 칠접선이다.

<표 II -1>과 <표 II -2>를 비교해 보면 조선 초기에는 접선보다 단선을 더 우위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중후기로 가면서 종이 제조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부채의 사용량이 많아졌고, 단선보다는 접선의 격이 더 높아졌다. 단선은 주로 집안의 부녀자들이, 접선은 사대부들이 사용하였다. 또한 접선은 사대부가 아닌 계층의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었으나 특수한 직군으로 무속인이나 예인에게만 사용이 허락되었다.<sup>36)</sup>

19세기에는 사대부들이 부채를 선물로 주고받는 풍습이 만연해 수요가 더욱 증대하였다. 순조 1년(1801) 윤행임(1762-1801)은 800개의 부채를 몰래 소지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부채는 중요한 상품으로 등장하였고, 선비들이 글씨나 그림을 부채에 그린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공예품으로서의 가치도 높아졌다.<sup>37)</sup>

### 3) 부채의 상징성

조선시대에는 단오를 맞아 왕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하사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 부채를 단오절선(端午節扇) 또는 예봉절선(例封節扇)이라 하는데, 해마다 국가에 공물(貢物)로 진상되었다. 공조에서는 단오를 맞아 진상할 부채의 총량을 파악해 한양의 경공장(京工場), 전라도 전주와 경상도 대구의 선자청(扇子廳)에 주문서를 내려보냈는데 이때 필요한 절선의 재료를 분정하기 위해 마련기(磨鍊記)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이것은 진상 과정에 필요한 문서로 인력이나 물품을 마련하는 데 공식적으로 사용된 문서였다.<sup>38)</sup> 조선시대의 절선은 시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고 진상을 통해 독점하여 증여체계

34) 혜경궁은 사도세자의 정실이자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1735-1816)의 궁호(宮號)이다.

35) 가순궁은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어머니인 수빈 박씨(1770-1822)의 궁호(宮號)이다.

36) 금복현(1990), 전통부채, 대원사, pp.113-114.

37) 장경희(2022), 조선시대 왕실용 부채와 선장의 직역 변화 및 제작실태, 동방학 47, p.244.

38) 김혁(2010), 조선후기 단오부채(절선)의 생산과 가치 순환, 고문서연구 36, p.36.

로 유통이 되었고, 이러한 정당한 경로를 통해서 취득된 절선만이 높은 가치를 지녔다.<sup>39)</sup> 공적 절차로 유통이 이루어진 부채인 절선에는 다음과 같은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첫째, 부채는 왕의 은혜를 상징하였다. 왕실에서는 단오 때마다 부채를 하사하였는데 이 풍습의 기원을 정확히 상고할 수는 없지만, 태종 10년(1410)부터 해마다 왕실의 각 전에 윗칠한 부채(접선) 진상이 이루어졌다.<sup>40)</sup> 열양세시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공조(工曹)와 전라·경상의 두 감영에서는 단오절이 되면 부채를 만들어 진상하였다. 왕에게 진상된 절선은 품계에 따라 조정의 대신들, 지방의 수령들, 사대부들에게까지 차등을 두어 하사되었고 부채를 하사받은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친척, 친지, 묘지기, 소작인들에게 이를 나누어 주었다.<sup>41)</sup> 이러한 절선에 대한 증여 절차는 조선왕조의 수직적 위계와 덕치주의의 통치이념을 반영한다.<sup>42)</sup>

둘째, 부채는 국제적, 정치적 관계를 위한 외교선물이었다. 중국의 칙사들에게는 선물용으로,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에게는 예단용으로 주는 대표적 선물이었다. 15세기 초에는 조선의 부채 1자루의 값이 중국의 황금 2냥을 호가할 만큼 값진 공예품이었다.<sup>43)</sup> 조선에 온 중국의 칙사 일행은 부채를 요청하였고, 조정에서는 많은 양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조선 초기부터 명나라에 가는 사행들은 중국 관원들에게 선사하고자 부채를 많이 가져갔다.<sup>44)</sup>

39) 김혁(2007), 조선시대 지방관의 선물정치와 부채, 영남학 15, p.114.

40) 태종실록 권 19, 태종 10년 4월 26일.

전칠은 이어대기 어려운 물건인데, 각 전에 해마다 바치는 접선에 모두 칠을 써서 국가의 용도를 허비하니, 금후로는 진상 이외에는 모두 백질을 사용하여 국가의 용도를 절약하소서(禁漆扇 司憲府上言: “全漆, 難繼之物 各殿歲進摺扇, 皆用漆, 虛費國用 今後除進上外, 皆用白質, 以節國用” 從之)

41) 김만순 저, 최대립 역(1993), 열양세시기, 홍신문화사, p.164.

42) 김혁(2007), 조선시대 지방관의 선물정치와 부채, 영남학 15, p.120.

43) 세종실록 권 52, 세종 13년 6월 25일.

부채는 비록 중국에서도 1자루 가치가 황금 2냥쯤에 준하니, 그 값이 지극히 중한데(扇子則雖中原, 一柄準黃金二兩, 其直至重)

44) 명나라에 선물로 준 부채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 권 20(세종 5년 4월 11일), 세종실록 권 32(세종 8년 4월 28일), 단종실록 권 14(단종 3년 4월 28일), 세조실록 권 4(세조 2년 5월 4일), 성종실록 권 158(성종 14년 9월 21일), 중종실록 권 54(중종 20년 7월 4일), 중종실록 권 66(중종 24년 9월 8일), 광

셋째, 부채는 사대부의 품격 있는 멋을 상징하였다. 단선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제작과 소비가 이루어졌으나 사대부가 사용한 부채인 접선은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어서 평민이나 천민들은 물론 부채를 만든 선장들도 합부로 사용할 수 없었다. 사대부들은 좋은 글귀나 그림으로 부채를 장식하여 휴대하면서 자신의 품격을 과시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명품과 같은 의미를 지녔던 것이다. 부채에 대한 사대부들의 풍류와 멋은 단원 김홍도의 수하탄주도(樹下彈奏圖)<sup>45)</sup>, 겸재 정선의 독서여가도(讀書餘暇圖)<sup>46)</sup>, 채용신의 매천 황헌의 초상<sup>47)</sup>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그림 II-2>는 여름철 나무 그늘 아래에서 흑립을 쓴 사대부(표암 강세황으로 추정)가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고 부채를 든 사람과 탕건을 쓴 청년(제자인 단원 김홍도로 추정)은 귀 기울여 듣고 있어 풍류를 즐기는 모습에 기품을 더해준다. <그림 II-3>은 겸재 정선의 자화상이다. 뒷마루 위에 옥색 중치막에 사방관을 쓴 선비가 비스듬히 기대앉아 오른손에 철부채(접선)를 펴든 채 화분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멋스럽다. 어주도(魚舟圖)가 그려진 부채는 합죽선으로 추정된다.<sup>48)</sup> 정자관을 쓰고 왼손엔 서책을, 오른손에는 부채를 든 사대부의 초상은 채용신이 그린 매천 황헌의 초상이다(그림 II-4). 1911년에 그려진 그림을 통해 조선 말기의 사대부 문화의 한 면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 그려진 부채는 끝부분이 오므려진 모습을 하고 있어 합죽선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채는 조선 말기까지 사대부의 멋과 풍류를 나타내는 기물이었다.

해군일기 권116 (광해군 9년 6월 21일)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45) 수하탄주도(樹下彈奏圖)는 김홍도가 20대에 그린 풍속화 7점이 담긴 단원속화첩(檀園俗畫帖)에 있는 그림이다.

46) 독서여가도(讀書餘暇圖)는 경교명승첩 상권 첫째 폭에 있는 그림으로 겸재 정선(1676-1759)이 50대 초반 북악산 아래 유란동에서 생활하던 모습의 자화상이다.

47) 매천 황헌의 초상(1911)은 채용신(1850-1941)이 그린 초상화이다. 채용신은 조선 특유의 초상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서양화법이나 사진술을 응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을 이루었다. 고종의 어진, 최익현 초상, 운남자상 등 많은 초상화를 그렸다.

48) 《매일신문》 이인숙의 옛 그림 예찬, 정선, 독서여가, 2021년 10월 4일자 14면.



<그림 II-2> 김홍도의 수하탄주도

출처: 중앙일보, 2019년 6월 27일자



<그림 II-3> 정선의 독서여가도

출처: 간송미술문화재단



<그림 II-4> 채용신의 황헌 초상

출처:

<https://blog.naver.com/ohyh45/20130331752>

## 2. 전주 합죽선

### 1) 합죽선의 역사

합죽선은 접선의 하나이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합죽(合竹), 즉 두 쪽의 대나무 껍질을 민어의 부레풀과 아교로 붙여 부챗살을 만든 것이다. 기존의 접선은 대나무의 속대를 깎아 부챗살을 만들었기 때문에 습기에 약하고 탄성이 적지만 합죽선은 대나무의 껍질을 얇게 떼서 붙였기 때문에 습기에 강하고 탄력성과 바람의 세기가 더 좋다. 이러한 합죽은 속대가 아니라 겉대를 맞붙이므로 부챗살의 재료가 되는 대나무가 2배 이상 들어가 제작비용이 많이 높아진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다른 접선에 비해 제작비가 많이 드는 합죽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p>49)</sup>

조선시대의 기록에 첩선(疊扇, 貼扇) 또는 접선(摺扇)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들 모두가 합죽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접선이라고 하면 합죽선을 떠올리는데 합죽선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기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조선의 르네상스라 할 수 있는 영·정조 시대이다.<sup>50)</sup> 정조 18년(1794) 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좌의정 김이소(金履素, 1735~1798)의 상소문에 ‘합죽(合竹)’이라는 명칭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지금부터 첩선의 명목을 영원히 혁파해 종이를 좁게 접지 말도록 하며, 부챗살은 20개를 넘지 않도록 하고, 길이도 6~7촌을 넘지 말도록 하며, 겉에 뽕을 붙이거나 **합죽선**이나 옷칠한 종이를 쓰는 것을 엄하게 금하소서.<sup>51)</sup>

49) 국립무형유산원(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민속원, p.43.

50) 장경희(2022), 조선시대 왕실용 부채와 선장의 직역 변화 및 제작실태, 동방학 47, p.243.

51) 정조실록 권 41, 정조 18년 11월 27일.

御史徐有聞論扇竹之弊甚是, 自今永革貼扇之名, 而紙勿狹摺, 矢無過二十, 長無過六七寸, 外角合竹漆紙竝嚴禁.

위의 기록을 통해 18세기에 제작된 합죽선의 크기와 재료를 추정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사대부들 사이에서 접선의 수요가 늘면서 부채는 점차 사치스럽고 값비싼 형태로 발전하였고, 자신의 영달이나 이익을 위한 뇌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중국 사신에게 뇌물로 부채를 선물한 기록,<sup>52)</sup> 사사로이 부채를 뇌물로 주어 문초한 기록,<sup>53)</sup> 영조 대(재위 1724~1776)에 창녕 현감의 대모선(玳瑁扇) 뇌물 기록<sup>54)</sup> 등이 남아 있다. 또한 부채를 휴대하는 풍습이 정착되면서 부채는 신분, 안목, 경제력 등의 우열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물이 되었다. 이러한 부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숙종(肅宗) 대에 시작되어 영조(英祖) 대에 극치를 이루었다. 서유구(1764~1845)는 임원경제지(林原經濟志)의 섬용지(贍用志)에서 당시 사람들이 폭이 넓고 큰 부채를 선호하여 사치를 하는데 이는 견고하지 못하므로 일본 부채처럼 크기를 작게 하고 종이를 앞뒤로 붙여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대형 부채에 대한 선호는 대나무밭의 고갈과 장인들의 심한 노역에 대한 사회문제로 표출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조 18년(1794)에는 진상 부채 중 접선을 없애고 규격과 모양을 혁파하였다. 정조 22년(1798)에는 대나무나 종이 및 칠의 복정제<sup>55)</sup>도 혁파함으로써 영·호남의 감영에서는

52) 숙종실록 권 15, 숙종 10년 8월 6일.

이번 칙사가 행차하는 곳마다 부채를 요구하였는데...순안현령 이공권은 특별히 정묘하게 부채를 만들어 그 요구에 응하였으니.. 청컨대 파직하소서(今番勅行, 到處求扇, 以其規外, 皆不應副, 順安縣令李公權, 以別製妙箒, 特應其索, 非但有關後弊, 士夫自飭, 亦甚無恥, 請罷職)

53) 경종실록 권 7, 경종 2년 4월 13일-7월 27일에 걸쳐 부채를 뇌물로 사용한 관리들을 공초한 기록이 나온다.

국청에서 승두선 50자루와 대간지 1백 폭을 지상궁에게 전해 주었다는 말을 가지고 이천기의 청지기 노미에게 주문하였더니(且僧頭扇五十柄 大筒紙一百幅, 天紀使老味傳給, 池尙宮事, 虎龍明白現告, 故老味捉來推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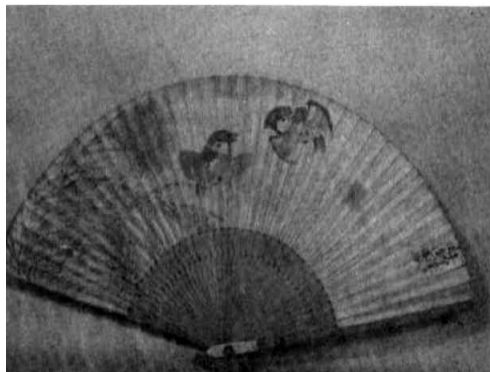
54) 영조실록 권 39, 영조 10년 9월 24일.

창녕 현감(昌寧縣監) 홍치기(洪致期)는 원래 행검(行檢)이 없는데 외람되어 군현(郡縣)을 맡아 백성의 고통을 고희(顧恤)하지 않고 오로지 상관(上官)을 섬기는 데에 힘써 교묘하고 이상한 부채를 만들어 권문세가(權門勢家)에게 뇌물로 선사했으니, 홍치기를 파직시키고 서용(敍用)하지 않음이 마땅합니다(昌寧縣監洪致期素無行檢, 濫典郡邑, 不恤民隱, 專意善事, 創造奇巧異樣之扇, 賂遺權貴, 致期宜罷職不敍)

55) 복정제(卜定制)는 조선시대에 정기적으로 징수하던 공물(貢物) 이외에 상급 관아가 하급 관아로 하여금 필요에 따라 그 지방의 토산물을 바치게 하던 것이다.

진상할 부채를 시장에서 구입해서 바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죽피(竹皮)를 앞뒤로 붙인 합죽선이 탄생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56)</sup>

합죽선에 대한 선호는 고종 대(재위 1863~1907)로도 이어졌다. 1800년대 말 세도가인 민태호<sup>57)</sup>의 창안(創案)으로 만든 합죽선으로는 표정선(杓庭扇)이 있는데, 접선의 장점을 뽑아 만든 것으로 부챗살은 얇은 죽피(竹皮)를 맞춘 합죽이고 변죽은 대나무 뿌리인 죽근(竹根)을 이용한 다절형이다. 목살은 부골(附骨)한 삼대선(三臺扇)의 형태이고 여기에 낙죽으로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크기는 종전보다 조금 작으나 우아하다. 민태호의 호를 따서 표정선(杓庭扇)이라고 하는데, 김삼대자는 부채의 기원과 변천(1985)에서 이 부채를 균정선(均庭扇)이라고 소개하였다. 근래의 합죽선도 이 표정선의 양식이 계승된 것이다. <그림 II-5>에서 왼쪽의 균정선(표정선)은 길이가 21~24cm인 비교적 작은 형태로 화조가 그려진 단아한 모습이다.



1900년대 초의 균정선

출처: 김삼대자(1985), 부채의 기원과 변천, 미술자료 36, p.43.



표정선

출처: 금복현(1990), 전통부채, 대원사, p. 67.

<그림 II-5> 표정선

56) 장경희(2022), 조선시대 왕실용 부채와 선장의 직역 변화 및 제작실태, 동방학 47, pp.243-244.

57) 민태호(834-1884)의 호는 표정(杓庭)으로 구한말 어영대장과 대제학 등을 지낸 민씨 외척 세도가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글씨에도 뛰어나 고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부채에 관심이 많아 간결하고 단아한 모습의 개량 부채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였는데 이것이 표정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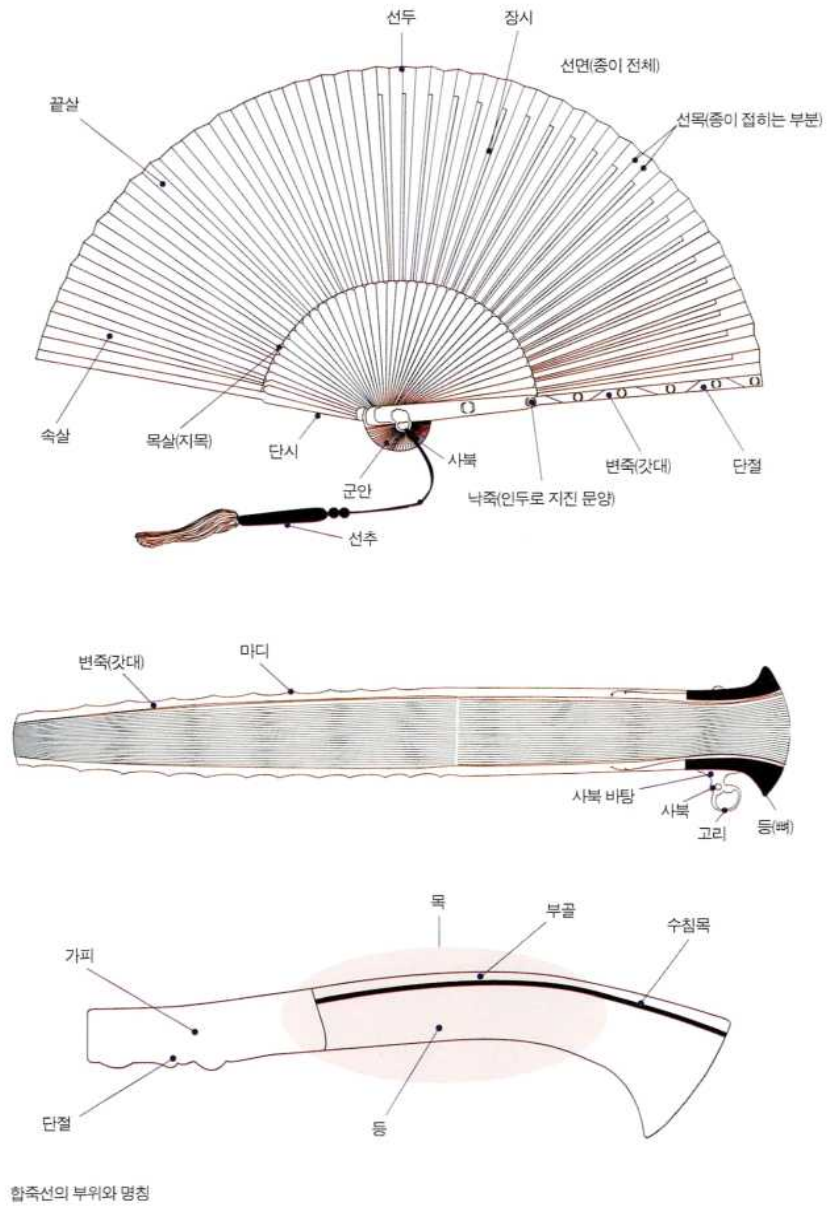
## 2) 합죽선의 구조

합죽선과 접선은 부챗살의 합죽 여부만 다를 뿐 세부 명칭은 동일하다. <그림 II-6>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합죽선의 구조는 부챗살과 변죽(부채의 바깥마감부) 그리고 부챗살과 변죽을 붙여 주는 선면(扇面)으로 되어 있고 부챗살과 변죽을 관통하여 묶어 주는 사북이 있어 펴고 접을 수 있다. 속살은 선면의 종이를 바르는 부분의 부챗살이고 변죽은 부채의 양쪽 가장자리 면으로 갖대 또는 걸대라고도 한다. 부골은 부채의 속살과 변죽을 결합할 때 변죽 안에 들어가는 대나무이고, 등은 부채의 손잡이 부분이다. 수침목은 부채머리 변죽 부분에 아름답게 보이도록 넣은 까만 선으로 과거에는 떡감나무의 검은 부분을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검게 물들인 버드나무를 사용한다.

가피는 변죽 옆에 붙이는 얇게 깎은 대나무이고 균안은 부채머리(손잡이)를 뿔 때 둥글게 퍼지는 부분이다. 목살은 종이를 바른 선면 밑의 종이를 바르지 않은 부챗살을 뜻하고 선면은 종이나 비단 등을 바른 부채의 면으로 부채얼굴이라고도 한다. 선목은 선면의 바탕이 접히는 부분이고 사북은 부채머리를 고정시키는 못으로 조선시대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들기도 했으나 대부분 백동과 황동으로 장식을 했다. 고리는 사북 위에 달며 선추를 다는 곳이고 선추는 사북 위의 고리에 장식을 겸해 다는 일종의 노리개로 지남철이나 이쑤시개를 달기도 한다. 합죽선의 부챗살은 긴 부챗살(장시)과 짧은 부챗살(단시)로 구성된다. 이때 단시는 장시보다 짧기 때문에 부챗살 하나는 장시로만 구성된 부분과 단시가 합죽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종시는 장시로만 구성된 부분에 발리며 합죽된 부분에는 바르지 않는다.<sup>58)</sup> 왕실에서 사용된 50선을 제외하고 대개 사대부들이 애용한 40선의 합죽선을 제작한다면 변죽 2개를 제외하고 총 38개의 부챗살이 필요하다. 합죽을 감안한다면 총 76개의 대나무 껍질로

58) 국립무형유산원(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민속원, pp.45-46.

다듬어진 부켓살이 제작되어야 한다.



<그림 II-6> 합죽선의 구조 및 명칭

출처: 국립무형유산원(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민속원, p.46.

전통적인 합죽선의 생산구조는 2부 6방으로 이루어졌다. 2부는 기초적인 재료와 외형을 제작하는 골선부와 섬세한 마무리 및 외형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수장부로 나뉜다. 6방은 2부를 세부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골선부는 다시 합죽방(초주방), 정련방으로 나뉜다. 합죽방(또는 초주방)에서는 대나무를 잘라 삶고 합죽선의 부챗살을 규격에 맞게 얇게 깎고 정련방에서는 부채의 형태를 만든다. 수장부는 부채에 무늬를 새겨 마감을 더하는 낙죽방, 부채의 외형을 매끄럽게 다듬는 광방, 부채에 종이를 붙이는 도배방, 부채 머리를 고정하고 장식을 다듬는 사복방, 4방이 있다.<sup>59)</sup> 이러한 2부 6방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한 자루의 합죽선이 만들어지는데, 장인들에 의해 엄격한 수공으로 이루어진다.

### 3) 합죽선의 종류

합죽선의 종류는 현재 무형문화재의 작품을 기반으로 변죽 치장, 선두 모양, 선면의 칠 여부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변죽(겉대)의 치장에 따라 다절선, 반죽선, 외각선, 내각선, 나전선, 대모선, 화각선 등이 있다. 다절선(多節扇)은 변죽에 마디 수가 많은 부채로 죽절선이라고 한다. 이는 맹종죽으로 만드는데 최근에는 마디 수가 많은 것을 고가로 친다. <그림 II-7>의 반죽선(班竹扇)은 합죽선이 아닌 접선으로, 반죽으로 변죽을 만들고 얼룩점이 나도록 변죽을 염색한 부채이다. 반죽은 마디 수가 적으나 견고하고 단단하여 부채의 모양이 오랫동안 유지된다. 외각선(外角扇)은 변죽 바깥쪽에 골각(骨角)을 장식한 부채로 소뿔로 만들어 우각선(牛角扇)이라고도 한다.<sup>60)</sup> 실제 한우의 뿔은 짧아서 쓰기 힘든 탓에 물소의 뿔로 만들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주로 무신(武臣)들이 사용했다. 내각선(內角扇)은

59) 국립민속박물관, folkency.nfm.go.kr(2023. 09.25.)

60) 국립무형유산원(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민속원, p.31.

변죽 안쪽에 골각을 댄 부채이다. 나전선(螺鈿扇)은 나전칠기의 기법을 이용하여 골대를 장식한 부채로, 꿰음기법으로 ‘수복다남자(壽福多男子)’로 나전이 되어 있는 유물이 존재한다. <그림 II-7>의 대모선(玳瑁扇)은 바다거북의 등 껍데기를 변죽에 붙인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대모홍접선(玳瑁紅摺扇)이라는 유물로 남아 있다. 이는 부채 중 최고의 화려함을 보여주며 주로 문신(文臣)들이 사용했다.<sup>61)</sup>



엄재수 선자장의 반죽선  
출처: <https://blog.naver.com/nobliancom/222838550820>



박계호 선자장의 대모선  
출처: 전주부채문화관

<그림 II-7> 반죽선과 대모선

선두(扇頭)는 부채 머리로 선두의 모양에 따라 어두선(魚頭扇)과 승두선(僧頭扇) 등이 있고 선면에 칠의 유무에 따라 칠선, 백선이 있다. 유환선(有環扇)은 부채의 자루에 선추나 향집 노리개 등을 달도록 고리가 달린 부채이고 선추가 없으면 무환선(無環扇)이라고 한다. 선추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은이나 놋쇠로 고리를 달면 유환이라 하여 지체가 높은 당상관이, 고리가 없으면 무환이라 하여 지체가 낮은 벼슬아치가 썼다.<sup>62)</sup> 백선은 선면에 그림이나 칠을 하지 않은 부채이다. <그림 II-8>의 백

61) 금복현(1990), 전통부채, 대원사, p.71.

선(왼쪽 그림)은 고리에 선추가 달린 유환선이고 오른쪽 그림은 칠선으로 선추가 없는 무환선이다.



김동식 선자장의 백선  
출처: 김동식 선자장 소장  
<그림 II-8> 백선과 칠선

김동식 선자장의 칠선  
출처: 전주부채문화관

어두선(魚頭扇)은 선두의 모양이 물고기 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부채로 선두가 매끈하고 작은 삼각형 모양이다. 승두선(僧頭扇)은 선두의 모양이 스님의 머리처럼 생겨 이름 붙여진 부채이다. 이 두 가지 부채는 영조 때 유행하기 시작했다.<sup>63)</sup> <그림 II-9>에서 어두선은 물고기 머리 모양으로 매끈하고 작은 삼각형 모양의 부채머리를 하고 있다. 낙죽의 모양과 방법으로 1930년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변죽을 4마디의 분죽으로 하였다. 어두선의 크기는 위의 그림이 18cm, 아래 그림이 23cm로 크지 않다. 이는 균정선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승두선은 부채머리가 둥근 원형으로 변죽을 분죽이나 맹종죽을 쓰지 않고 왕대를 써서 만들었고 변죽, 부챗살과 선면에 옷칠을 하여 고급스럽다. 어두선이나 승두선은 부채머리가 작아 변죽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어 휴대하기에 편한 가벼운 부채로 제작하기에 적합하지만 쥐는 부

62) 국립무형유산원(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민속원, p.35.

63) 김삼대자(1985), 부채의 기원과 변천, 미술자료 36, 국립중앙박물관, p.12.

분이 작아 편안하게 손에 쥐이지는 않는다.



어두선

승두선

〈그림 II-9〉 어두선과 승두선

출처: 김동식 선자장 소장품

#### 4) 합죽선의 제작 기관

조선 전기에 국가에 공납하는 부채를 만드는 기관으로는 한양의 공조(工曹)에 속한 경공장, 전라도 전주에 선자청, 경상도 대구에 절전소<sup>64</sup>가 있었다. 성종 7년(1476)의 기록을 살펴보면 중앙관서에 예속된 경공장 중 부채와 관련된 장인들로는 본조(本曹)에 첩선장(貼扇匠)<sup>65</sup> 4인과 원선장(圓扇匠)<sup>66</sup> 2인이 있었

64) 경상도의 절전소 또는 선자방에 대해서는 18~19세기 대구 지역의 장인 직역 파악과 변화 양상을 다룬 김동영(2021)의 연구와 조선후기 단오부채의 생산과 가치 순환에 관한 김혁(2010)의 연구가 있다.

65) 첩선장(貼扇匠)은 부챗살에 종이나 비단을 붙이는 장인이다.

66) 원선장(圓扇匠)은 둥근 부채를 만드는 장인이다.

으며 지방 관서의 외공장에는 경상도에 선자장 6인과 전라도에 선자장 2인이 있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영조 22년(1746)에는 외공장 장인들은 관 명단에 올리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장(私匠)을 임용하여 물품을 조달하기도 했다.<sup>67)</sup>

정조 17년(1793)의 기록에 따르면 감영이 있는 전주, 대구 외에 통제영에서도 부채가 제작되었다.<sup>68)</sup> 조선 후기 육전조례(六典條例)를 통해서도 감영 외에 경상좌·우병사, 경상좌수사, 전라좌·우수사 등 통제영의 산하기관에서 공납을 분담하였음이 확인된다. 이후 전라와 경상 지역이 조정에서 사용하는 부채의 공급을 대부분 전담하였는데 경상도는 통제영의 선자방(扇子房)에서, 전라도는 전주의 선자청(扇子廳)에서 주로 제작을 하게 되었다. 그 중 전라감영은 남원과 담양의 대나무 공급과 전주 한지의 맥이 이어지면서 조선 말기까지 선자청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된다.<sup>69)</sup>

본 논문에서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는 전주는 조선시대에 전라도를 통괄하는 전라감영이 위치했던 곳으로 전라감영 내에 부채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선자청(扇子廳)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운번제로 선자통인(扇子通人)을 1명씩 지정하여 전년 제작비로 1만 냥을 마련해 부채를 조달하도록 청부하였다. 이때 선자통인은 순창과 담양 등지에서 대나무를 구매하였고, 백동과 황동, 칠, 한지는 완주군 소양면에서 구입하였다. 모든 재료가 완비되면 선자장을 고용하여 선자청 내 세부공장에서 지방, 죽방, 주석방으로 분업화하여 부채를 제작하였다. 완성된 부채는 선자청의 비장이 먼저 검사하고 최후로 관찰사가 재검하여 합격하면 납품하였다.<sup>70)</sup>

전주의 선자청은 1872년의 전주 지도인 <그림 II-10>를 통해 감영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전라감영의 서남쪽 가장자리에 자리하고 있던 선자청은 4

67) 장경희(2022), 조선시대 왕실용 부채와 선장의 직역 변화 및 제작실태, 동방학 47, p.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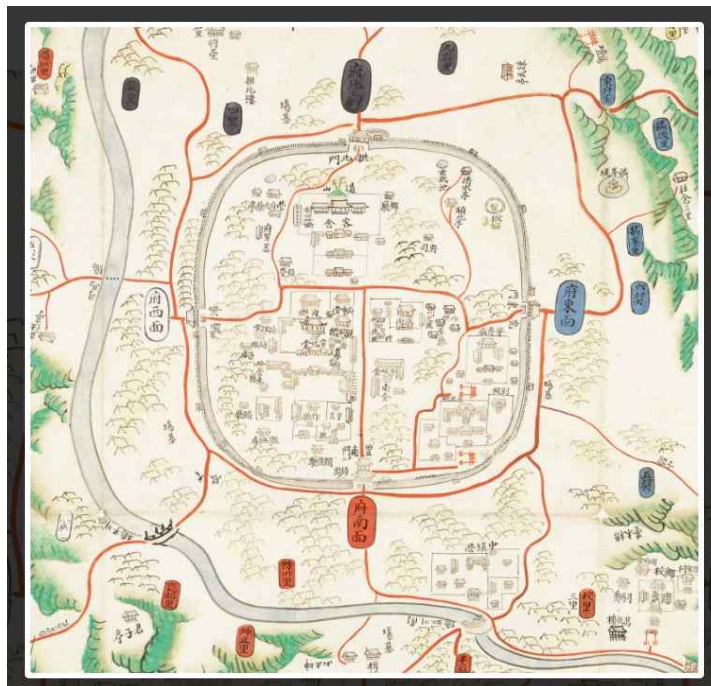
68) 정조실록 권38, 정조 17년 8월 29일.

매년 단오날이면 전라도와 경상도의 감영, 통제영이 부채를 만들어 조정의 관원들에게 두루 선물하는 일이 예부터 전해오는 전례이다(每歲端午, 兩南觀察營 統制營造扇, 遍問于朝紳, 舊例也).

69) 심호남(2017), 조선전기 부채에 대한 실증적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46, p.176.

70) 장경희(2022), 조선시대 왕실용 부채와 선장의 직역 변화 및 제작실태, 동방학 47, p.246.에서 재인용.

채의 건물로 구성됐으며 상당히 큰 규모였다. 전라감사의 집무실인 선화당의 왼쪽 상단부터 약재를 다루는 심약당(審藥堂)과 법률을 다루는 검율당(檢律堂) 그리고 그 밑으로 진상청(進上廳)이 있었다. 이를 둘러싸고 한지를 만들던 지소(紙所)와 한지를 인출하는 인출방(印出房)이 배치되었으며, 그 남쪽 방향으로 선자청(扇子廳) 4채가 자리했다. 그곳에는 장방형의 대지에 서로 마주보는 6칸의 맞배집 건물 2동과 2칸의 팔작집 2동이 있어 16칸 규모를 이루었다. 이로부터 19세기까지 전주 선자청에서 부채의 생산량이 매우 많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곳의 선자청에서는 1920년까지 부채가 제작되었다.<sup>71)</sup> 1921년에 2층 규모의 633평의 전라북도 청사가 들어서면서 선자청은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의 완산경찰서 민원실 뒤편사거리 모퉁이로 그 위치가 추정된다(그림 II-11).<sup>7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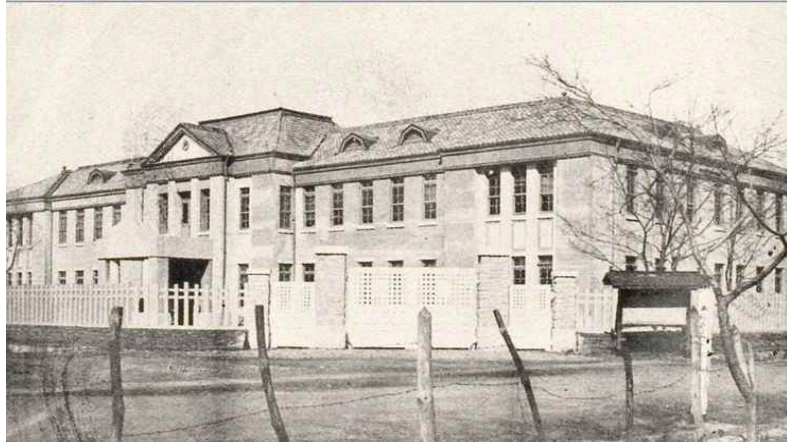


<그림 II-10> 1872년 전주 지도

출처: 서울대 규장각 소장

71) 국립무형유산원(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민속원, p.60.

72) 이동희(2016), 꽃심을 지닌 땅 전주, 전주 한지와 부채, 전주역사박물관, pp.156-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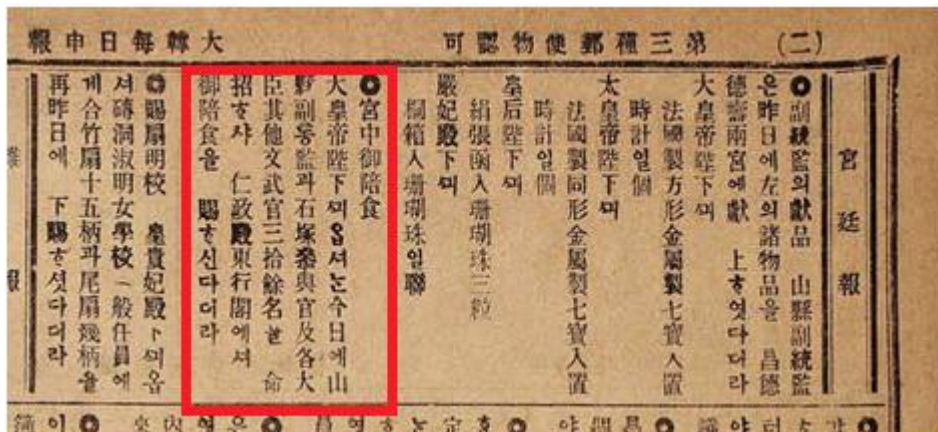


<그림 II-11> 1921년 전라북도 청사

출처: [http://contents.history.go.kr/photo/1920/1920\\_period03.do](http://contents.history.go.kr/photo/1920/1920_period03.do)

### 5) 합죽선의 변천

조선 말기인 대한제국 시기에도 단오절선의 풍습은 조선 사회로 이어졌다. <그림 II-12>에 제시한 1910년 7월 6일자 <<대한매일신보>>의 ‘합죽선 하사’ 기사를 살펴보면 황귀비가 숙명여학교의 임원들에게 합죽선 150명과 미션을 하사했다<sup>73)</sup>고 보도되었다.



<그림 II-12> 1910년 <<대한매일신보>>의 합죽선 하사에 대한 기사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전라감영 내에 있던 선자청이 폐쇄된 이후에도 합죽선의 명성은 지속되었는데 이는 <그림 II-13>의 1924년 매일신보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74)</sup> 내용을 살펴보면 합죽선은 내지제품(일본제품)에 비해 우수하고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특히 전라북도 전주산을 최고로 치며 합죽선 1병(자루)의 가격이 70전에서 1원 50전 가량이라고 했다.



<그림 II-13> 1924년 《매일신보》의 전주 합죽선에 대한 기사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표 II-3>은 1920년대의 물가로 노동자들의 임금 통계를 알아본 것이다. 당시 최고의 임금은 일본인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조선인의 최저 임금의 평균으로 볼 때 1일 50전으로 월 15원의 임금을 받았다. 이로 볼 때 합죽선 1자루의 가격인 70전에서 1원 50전은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을 넘어서는 비싼 물건이었다. 1920년대의 1원은 현대의 화폐가치로 약 3~5만원이고 1원은 100전으로 환산된다.

73) 《대한매일신보》, 1910년 7월 6일자 2면.

황귀비전하게움서 숙명여학교 일반 임원에게 합죽선 150병과 미션을 하사했다.

74) 《매일신보》 1924년 3월 17일자 2면.

〈표 II -3〉 1920년대 직업별 1일 임금 통계

(단위: 원)

직업	최고	최저	최고와 최저의 평균
공업 및 광업	4.29	0.17	0.88
토목, 건축	2.22	0.60	0.94
농업, 목축	0.80	0.28	0.45
수산업	2.10	0.53	0.94
통신, 운수	2.98	0.93	1.61
평균	2.48	0.50	0.91

출처: <https://biog.naver.com/pjysheep/22308389128>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과 일본에서 들여온 값싼 부채로 인해 조선의 부채는 쇠퇴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의 접선과 비슷한 조선의 접선은 설 곳이 없어졌지만 합죽선은 조선의 부채로 그 명성을 이어갔다. 합죽선은 공정이 매우 까다롭고 세심한 손길이 요구되어 일본사람들이 그 기법을 배우려 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sup>75)</sup> 합죽선은 조선에만 존재하는 양식의 부채였던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장인들은 전자청이 있던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부근에서 집단으로 모여 작업을 하였다. 일본인이 자본을 대고 장인들이 일꾼을 거느리고 작업을 지시, 관리하며 부채를 제작하였고 이렇게 제작된 부채는 전국에 공급하는 중간상회로 보내졌다.<sup>76)</sup> 1941년 7월 1일자 《매일신보》에서 전주의 한 해 부채 생산량은 70만 자루에 달하며 합죽선이 조선에 퍼져 있다<sup>77)</sup>고 보도할 정도로 전주 합죽선은 전국의 시장에 판매되어 부채의 대명사가 되었다. 해방 후 일본인들이 귀국하고 중앙동이 발전하면서 영세한 부채 장인들은 석소마을

75) 한국지역사회연구소(1998), 합죽선과 함께 산 반백년 인간문화재 이기동, 계간 지역사회 30, p.87.

76) 국립무형유산원(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전자장, 민속원, p.60.

77) 《매일신보》, 1941년 7월 1일자 3면. 전주 명산 부채 7월부터 檢査制.

(아중리), 가자미마을(인후동), 새터, 성황당, 안골 등 5개소에 부채 마을을 형성하여 거주하면서 부채를 제작해 판매하였다. 그때부터 가자미마을과 석소마을은 부채골로 불리게 되었다.

전주의 태극선과 합죽선은 내지인(일본인)이나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아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그러나 어디서 어떻게 수출했는지 관련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그림 II-14>의 합죽선은 마디가 많은 맹종죽이 아닌 분죽으로 만든 5마디의 정갈한 모습이다. 부챗살의 낙죽도 짙어낸 것이 아니라 일일이 인두로 그려낸 것이다. 부채곽에 조선선이라는 상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출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속대에 기록된 용산공작주식회사<sup>78)</sup>라는 글자를 통해 생산 연대가 1920년대 이후로 추정된다.



<그림 II-14> 용산공작주식회사의 조선선

출처: <https://blog.naver.com/yaniaO>

78) 용산공작주식회사는 1919년에 일본인들의 자본으로 설립되었다.

### 3. 선행연구

현재까지 이루어진 전통부채에 관한 연구로는 1937년 조선총독부에서 한국의 민속자료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던 이마무라 도모(今村 鞆)의 「조선과 부채(朝鮮と扇)」이 있다. 『조선풍속자료집』<sup>79)</sup>에 포함된 이 연구는 부채의 기원과 한·중·일 삼국 부채의 상호 영향을 비교하였다. 이마무라의 저술을 기초로 1972년에 최상수는 한국의 부채 연구라는 저서에서 당시의 부채 제조 현황과 장인들의 현실을 기술하고 부채에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였다. 1985년에는 김삼대자(金三代子)가 부채의 시대적 변천을 서술하면서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부채 유물의 사진을 추가하였다.<sup>80)</sup> 1990년에는 금복현이 최상수의 한국의 부채 연구에 사진 자료를 대폭 보강하여 전통 부채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1990년대까지 최상수와 금복현의 저서 외에 다른 연구물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2000년대 들어 문학적으로 부채의 이미지를 연구한 김창룡<sup>81)</sup>의 연구와 부채의 활용을 민속 교육적으로 접근한 강현모<sup>82)</sup>의 연구가 있다. 임돈희와 로저L. 자넬리<sup>83)</sup>는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의 실태 조사를 통해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승교육을 탈피하여 교재와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방안의 다양화, 무형문화재의 제도화와 체계화 그리고 지원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혁<sup>84)</sup>은 조선시대 지방관의 선물정치와 부채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19세기 말 고성(高城)의 부사(府使)였던 오형묵이 고을 백성들에게 부채를 하사하는 행위

79) 이마무라 토모(1937), 朝鮮と扇, 朝鮮風俗資料集說, 조선총독부 中樞院, pp.2-152.

이마무라 토모(1870~1943)는 조선인의 삶과 민속적 생활양식을 연구한 사회민속학자이자 역사민속학자이다. 그는 1908년 충북 경찰 서장을 시작으로 다양한 관직을 역임하였다. 『조선풍속자료집』은 조선의 사회계급, 관료, 제사, 연중행사, 복장 등의 제반 풍속을 다룬 책이다.

80) 장경희(2022), 조선시대 왕실용 부채와 선장의 직역 변화 및 제작실태, 동방학 47, p.223.

81) 김창룡(2004), 부채의 한국문화적 심상, 한국언어문화학 2, pp.439-491.

82) 강현모(2005), 부채의 활용에 대한 민속교육적 접근, 비교민속학 30, pp.19-37.

83) 임돈희, 로저L. 자넬리(2005), 무형문화재의 전승실태와 개선방안, 비교민속학 28, pp.437-455.

84) 김혁(2007), 조선시대 지방관의 선물정치와 부채, 영남학 15, pp.97-142.

의 의미를 가족 이데올로기와 연관시켰다. 또한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전승 실태 개선을 위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임재해<sup>85)</sup>는 무형문화재 정책은 무형문화의 본질과 중요성을 자각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고 무형문화재의 문화적 가치 재인식과 무형문화재의 계승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2010년대 논문으로 김혁<sup>86)</sup>은 경상감영의 절선소(節扇所) 관련 기록을 토대로 조선후기 공납제의 상황을 밝히고 덕치주의의 상징으로 단오부채의 의미를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절선소의 문서를 통해 18~19세기 장인들의 이름, 작업 기간, 급료를 파악하고 부채의 분급 대상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이다. 함한희와 정성미<sup>87)</sup>는 전라북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목록화하고 현황을 분석했다. 2010년 하반기에 18개월 동안 온라인 조사를 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데이터베이스와 포털사이트<sup>88)</sup>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해당 종목의 특징, 전승, 보전 활동 양상이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두었다. 이는 학계나 일반인들에게 무형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심호남<sup>89)</sup>은 실록(實錄)을 중심으로 조선전기 부채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이행하여 부채의 제작 기관을 조사하고 부채의 용도를 의장용과 외교를 위한 선물용으로 파악하였다. 천진기<sup>90)</sup>는 전통공예기술의 전승 현장을 살펴보고 문하생 학점, 학력 인정제, 표준교육과정을 통한 공예 기술의 전승체계 확립 방안을 모색하였다. 엄재수

85) 임재해(2007), 무형문화재의 가치 재인식과 창조적 계승, 한국민속학 45, pp.237-285.

86) 김혁(2010), 조선후기 단오부채의 생산과 가치 순환, 고문서연구 36, pp.121-163.

87) 함한희·정성미(2012), 전라북도 무형문화유산의 목록화와 현황분석, 실천민속학연구 22, pp.169-200.

88) ICHPEDIA(<http://www.ichpedia.org/ichportal>)은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여 일반인도 입력된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포털 사이트이다.

ICHPEDIA는 IHC(International Cultural Heritage)와 PEDIA(encyclo-pedia)를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무형문화유산 백과사전이란 뜻이다. (출처:함한희·정성미(2012), 전라북도 무형문화유산의 목록화와 현황분석, pp.180-182.)

89) 심호남(2017), 조선전기 부채에 대한 실증적 연구, 동아시아古大學 46, pp.173-193.

90) 천진기(2017), 전통 공예기술의 전승체계에 관한 현장적 접근, 한국민속학 66, pp.239-258.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sup>91)</sup>는 한국 전통부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디자인을 위해 칠 접선의 복원과 현대적 문화상품으로의 접근을 모색했다. 이 연구는 현재 부채를 제작하는 선자장이 선대(先代)와 자신의 작품을 통해 현대적인 칠 접선을 제작하며 문화상품으로 연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전통 칠 접선을 현대적 디자인으로 만들고 이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설문조사하여 현대인들의 감성에 맞는 작품 접근을 시도하였다.

2020년대의 연구로 김동영<sup>92)</sup>은 18~19세기 후반까지 경상감영의 절선소에 입역하던 장인의 직역을 가계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현정<sup>93)</sup>은 문화유산의 보전과 지속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장경희<sup>94)</sup>는 조선 왕실용 부채의 수급과 그것을 제작한 장인들의 직역을 다루어 19세기까지 부채 공급의 제도적 측면, 동원된 부채 장인의 존재와 그들의 역할 그리고 시기에 따른 직역의 변화와 제작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로써 이전에 비해 부채 제작 기관과 장인에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91) 엄재수(2019), 한국 전통 부채의 역사적 고찰 및 디자인 접근에 관한 연구: 칠접선 복원과 현대 디자인 적용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8.

92) 김동영(2021), 18~19세기 대구지역의 장인 직역 파악과 변화 양상: 선자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5.

93) 이현정(2021),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치창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233.

94) 장경희(2022), 조선시대 왕실용 부채와 선장의 직역 변화 및 제작실태, 동방학 47, pp.221-250.

### Ⅲ. 전주 합죽선 문화의 전승 및 변화 양상

#### 1. 무형문화재의 계보와 전승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전통문화는 해방 이후 전쟁과 복구,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유·무형을 막론하고 그 토대가 위태로워졌다. 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국가적으로 1962년 무형문화재보호법<sup>95)</sup>을 제정하여 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보존하는 기초를 만들어 발전시켜가고 있다. 2003년 유네스코에서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발표하였다. 이 협약에서는 문화유산의 보호·관리는 자국의 전통문화를 지키는 일은 물론이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자원을 지키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2023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국가무형문화재는 9개<sup>96)</sup>, 시도 무형문화재는 77개로 총 86개이다. 그 중 전주에 거주하는 무형문화재는 27개로 특히 공예분야가 많다.<sup>97)</sup> 공예분야 중 합죽선과 관계된 것은 선자장과 낙죽장이다. 선자장이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1993년으로 이기동 선자장이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으로 지정되면서부터였다. 이후 2015년 김동식 선자장이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로 지정되면서 합죽선에 대한 자료들이 국립무형유산원에 의해 수합, 정리되었다. 합죽선에 미적 완성도를

95)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1961년 12월 27일 최고회의 제93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1962년 1월 10일 제정되었다. 이는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문교부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문교부에 문화재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네 종류로 구분된다. 1982년 12월 전문 개정이 되었고 그 뒤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쳤다(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

96) 전라북도 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백동연 죽장, 이리농악, 임실필봉농악, 남원농악, 위도 띠배놀이, 이리향제줄풍류, 윤도장, 선자장, 사경장으로 총 9개이다.

97) 전주시에 있는 국가, 시도 무형문화재는 음악 7명, 공예 36명, 무용 6명, 음식 1명, 민속놀이 15단체로 총 27개이다(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높이는 작업을 하는 낙죽장은 2019년에 신설되었고, 이신입이 최초의 낙죽장으로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51호가 되었다.

### 1) 김동식 선자장

김동식(1943년생) 선자장과의 면접을 통해 전주지역 선자장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합죽선 전수 계보에 대해 조사하였다. 면접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0



<그림 Ⅲ-1> 김동식 선자장  
출처: <https://www.iha.go.kr/>

월 30일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와의 제1차 면접 시에는 김동식 선자장 외에도 노덕원 선자장(골선·정련, 84세), 김대성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장현정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참여하였다. 제2차에서 제5차 면접 시에는 김동식 선자장, 김대성 이수자, 장현정 이수자가 참여하였다. 면접은 전주시 삼천동에 위치한 자택이자 공방인 동성공예에서 이루어졌다.

#### (1) 계보

김동식 선자장은 전라북도 전주시 인후동 가재미마을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농업에 종사했는데, 옆 마을인 석소마을에서 외가 일가가 부채 제작을 하였다. 외가는 라경옥(외증조부)부터 합죽선을 가업으로 이어오던 집안이었다. 1대 라경옥 선자장은 본래 합죽선의 고향인 나주에서 부채를 제작했으

나 판로가 막히자 나주를 떠나 장성으로 이주하였다. 그 후 2대 라학천 (1886~1962)이 장성에서 태어나고서 전주(완주군) 용진면 석소마을로 이주하였다.



〈그림 Ⅲ-2〉 라학천 선자장  
출처: 김동식 선자장 소장

라학천은 부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고 그의 4남 2녀 모두에게 부채 만드는 것을 가르쳤다(그림 Ⅲ-2). 그가 제작한 합죽선이 왕(고종)에게 진상할 정도로 제작 기술이 뛰어났다고 하는데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김동식 선자장은 안타까워했다. 본 연구에서는 매천야록(梅泉野錄)<sup>98)</sup> 제4권에서 고종 41년(1904)에 아전 백남신이 진상한 부채가 라학천 선자장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을 발견하였다.

전주의 아전 백남신은 대병으로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쳐 이용익과 사권 후, 고종에게 많은 뇌물을 진상했다. 그는 매년 궁중의 부채를 자신이 도맡았는데 이 해 여름에 국상(國喪)을 당하게 되자 하얀 부채 3만 개를 진상했다. 그러나 고종은 그것을 물리쳤다. 백남신이 황송하여 무엇을 진상할지 모르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흰색 부채(白扇)를 진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백남신은 부채 자루를 먹감나무로 바꾸고 그 부챗살에 낙화를 그려 백색을 가린 후에 진상했다. 고종은 비로소 그 부채를 받으라는 명을 내렸다.<sup>99)</sup>

98) 매천야록(梅泉野錄)은 구한 말기 재야 문인 황현이 1864년부터 1910년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쓴 기록물이다. 총 6권 7책으로 되어 있다. 황현은 1910년 경술국치의 16일 뒤에 자결했는데, 그 16 동안의 일들을 고용주(高壙柱, 1865~1930)가 기록했다. '매천'은 황현의 호이다.

99) 매천야록 권 4, 19.

全州吏白南信, 以隊兵餉官, 交結李容翊, 以通于上, 進獻甚豐, 每歲宮中節扇, 南信主之, 是夏,

이 기록에 등장하는 백남신은 1911년경 《매일신보》가 발표한 50만원 이상의 조선의 자산가 26명 가운데 한 사람일 정도로 재력가였다.<sup>100)</sup> 지방 아전(전라북도 전주) 출신인 그가 당대의 세도가들과 겨룰만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전주 진위대 향관, 궁내부 주사, 내장원 검세관 등의 직책을 이용한 상업 활동을 전개한 결과였다.<sup>101)</sup> 백남신은 관직에서 내려온 1908년에도 여전히 고종에게 접선 진상을 담당하고 있었다.<sup>102)</sup> 전주의 아전이었던 그가 고종 황제에게 진상한 부채는 전주에서 만들어졌을 것이고 엄격하게 심사된 합격품만이 진상 가능했기에 진상품 중 일부는 라학천 선자장의 합죽선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동식 선자장의 합죽선 전수 계보는 <그림 III-3>과 같다. 라학천의 자녀 4남 1녀는 모두 합죽선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라오복, 라이선(합죽선장), 라태순(합죽선장), 라정옥(김동식 선자장의 어머니, 합죽선장), 라태용(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 라오목(도배장)은 6방의 전 기술을 두루 연마하였고 석소마을에 집단을 이루어 살면서 부채를 만들었다.

4대 김동식 선자장은 14세 때인 1956년 아버지의 권유로 석소마을의 외가에 들어가 외삼촌들, 특히 라태순에게 합죽선 제작 기술을 배웠다. 이들을 통해 김동식은 2부 6방의 기술을 골고루 전수받았고 외조부 라학천 밑에서 기술을 숙련했다. 그는 2007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 2015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으로 지정되었다.

---

以國進素扇三萬上却之，南信皇懼不知所出，或曰純素故也，南信改以烏柿柄，烙畫其幹，以亂其素而進之，始命受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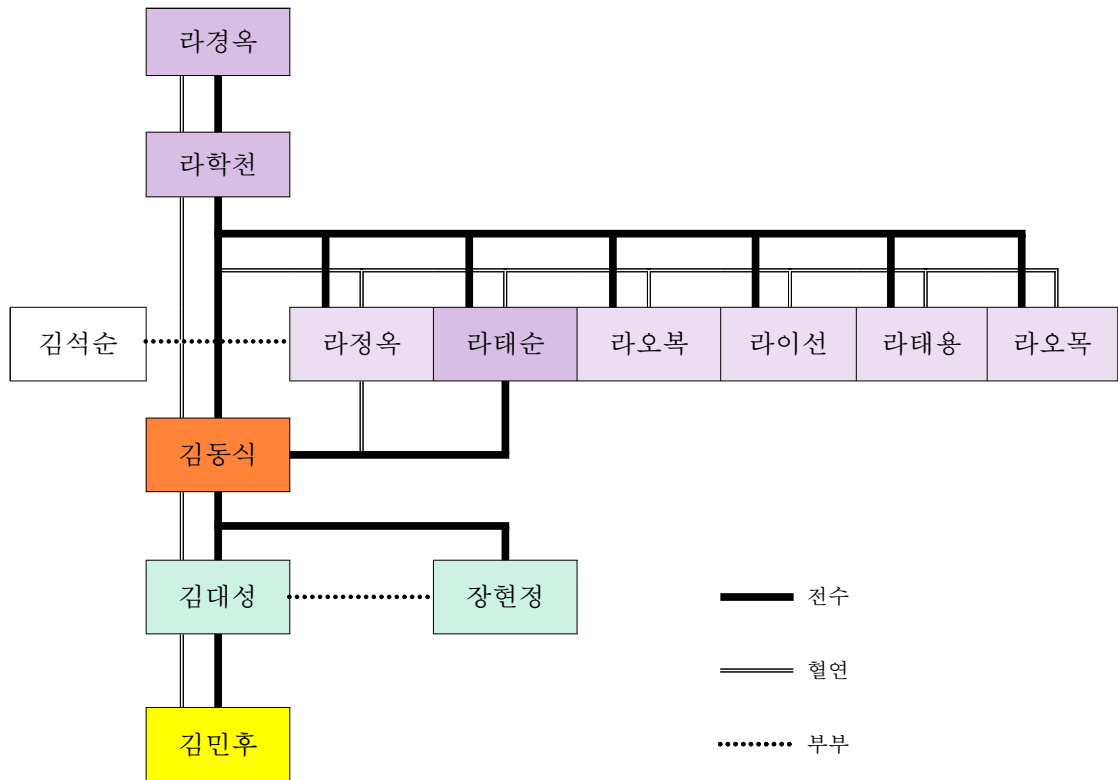
100) 《매일신보》, 1911년 7월 28일자. 조선의 자산가.

101) 오미일(2002),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서 政商의 길-백남신. 백인기의 자본축적과 정치사회활동, 한국학술진흥재단. p.125.

102) 《대한매일신보》, 1898년 9월 19일자.

고종은 여름철이 되면 각 궁가(宮家)나 관리에게 하사하는 부채의 가격 1만여 원을 年前에 미리 백남신에게 지급하여 진상하도록 했다. 관료(官路)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 부채 진상을 담당했다.

5대 김대성 이수자는 김동식 선자장의 아들이며 장현정 이수자는 며느리로 합죽선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 손자인 6대 김민후도 19세인 2021년부터 가업을 계승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다(그림 III-3).



<그림 III-3> 김동식 선자장의 계보

(2) 전승

김동식 선자장은 한국전쟁 이후 생계를 위해 합죽선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합죽선 만드는 것을 왜 배웠겠어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살기가 많이 어려워 생활 방편으로 배우게 된 거지요. 그때는 제작 여건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 당시 부채를 제작하는 환경은 매우 열악해서 낮고 좁은 초가의 구석진 공방에서 일을 하였다. <그림 Ⅲ-4>는 1950년대 석소마을 띄집의 모습이다.



<그림 Ⅲ-4> 1950년대 석소마을 띄집

출처: 탁경식 개인 소장

띄집은 잔디와 흙을 쌓아 지붕을 엮은 초가<sup>103)</sup>이다. 하수도 시설이 없어 생활하수가 마당이나 길에 흘러 악취가 심했으며 인분으로 농사지를 거름을 만들어 냄새도 많이 났고 특히 파리가 극성이었다. 하루 종일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고 일을 하고 나면 어지럽고 많이 피곤했는데 그래서인지 외조부나 외삼촌을 비롯한 장인들은 술을 좋아하였다. 소주통(옹기) 1말을

갖다 놓고 마시면서 일하며 고됨을 잊었다.

김동식 선자장이 합죽선을 배우기 시작한 1956년 합죽선은 크게 대사십, 중사십, 소사십, 중삼십으로 분류되었다. 대사십은 부채의 길이가 30cm, 부챗살이 40살인 부채를 말하고 주로 60~70대 남성이 사용했다. 중사십은 부채의 길이가 27cm, 부챗살이 40살인 부채로 40~50대 남성이 들고 다녔다. 길이 25cm에 부챗살이 40살인 여성용 부채가 소사십이었다. 중삼십은 길이 30cm, 부챗살 30살의 까만 옷칠을 한 부채로 주로 창을 부르는 사람이 들고 다녔다.

그는 14세부터 18세까지 외가에서 일하다 3년 정도 기술자 대접을 받으면서 돌아다니며 기술을 배웠다. 1965년 군대에 입대해 1968년에 제대를 했다. 그 사이에 부채를 만들던 장인들(문준하, 배규남, 라태순, 라이선 등)이 이른 나이에 작고했고 부채를 찾는 수요가 급증했다. 수요가 많고 장인들의 수가 적어 지다보니 돈이 있는 사람이 장인들을 모아 부채를 만드는 가내 수공장이 많이

103) 전주시, [https://daum.jeonju.go.kr/web/page.php?pcode=C&webzine\\_code=2fv86kfy3891t52r](https://daum.jeonju.go.kr/web/page.php?pcode=C&webzine_code=2fv86kfy3891t52r)

생겨나게 되었다. 1950~1960년대 부채 유통은 도급 방식이었다. 상인이 부채 장인에게 돈을 지급하여 부채를 제작하게 하고 이를 전국에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대표적인 중간상회로는 전주 남부시장의 국일상회와 삼화상회가 있었고 유명한 상인으로는 김만엽, 조일봉 등이 있었다. 이렇게 장인들은 목돈을 받아 부채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큰 이득은 없었다. 대나무, 한지, 민어부레풀 등 부채를 만드는 재료를 구입하고 나면 크게 남는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재료비가 없어 다음 작업을 하려면 빚을 얻어 만들고, 부채를 만들어 빚을 갚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가난을 면하기 힘든 시간이었다. 장인들은 만들기만 했지 직접 팔지 않았기에 만든 부채의 수량에 비해 적은 돈을 받고 넘겼고 전주(錢主)나 판매 상인은 몇 배의 이득을 남길 수 있었다. 1만 원 받을 부채를 2~3천 원에 전주나 상인에게 넘기는 식이었다.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는 합죽선의 전성기였다. 1년에 47,000~48,000개까지 만들었는데 만든 것이 모두 판매되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부업이 아닌 전업으로 부채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1년 내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만들어 돈을 번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부채를 만드는 사람들이 1970년대 전라북도 공예조합을 만들었다. 전주의 모든 합죽선을 조합에서 매입하고 전국에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일부 조합 납입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장인들에게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였으나 조합원들 사이의 판매 문제로 조합이 해체되고 말았다. 조합이 해체되고 난 후 다시 조합 구성이 시도되기는 했으나 무산되었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합죽선이 많이 양산되었으나 중국산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조악한 합죽선도 등장하여 오히려 질 좋은 합죽선의 입지를 좁게 했다.

본래 부채는 6방의 과정을 거치며 부챗살 76조각을 한 조각 한 조각씩 만들어야 하는 손이 아주 많이 가는 물건이다. 과거에는 6방이 각각의 과정을 담당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그 기술을 가진 장인들도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는 대나무를 채취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과정을 한 사람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동식 선자장은 그 과정을 거의 다 직접 하고 있다.

“부채는 만들수록 어렵습니다... 지금도 만들며 고민하고 있죠. 보통 부채 1점 만드는데 15일 정도 걸려요. 재료 준비까지는 더 걸리고요. 가업의 명예를 걸고 지금까지 내 손에서 만든 작품은 세계 어디 내놓아도 자랑할 정도가 되어야 하죠. 제가 만든 합죽선에는 크게 대나무 껍질, 손잡이 나무(대추나무, 떡감나무), 전주 부채전용 한지(합죽지) 3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종이를 갈아 끼우고 물과 너무 뜨거운 것만 피하면 200~300년도 거뜬히 갑니다.”

김동식 선자장의 합죽선은 변죽(겉대)을 분죽에서 맹종죽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오래된 부채는 변죽을 보면 알 수 있다. 분죽은 마디가 쌍거풀, 맹종죽은 외거풀이다. 변죽의 마디 수를 늘리려고 맹종죽을 쓰는 것은 아니다. 분죽도 마디가 촘촘히 올라오는 종자가 있다. 소자는 5마디, 중자는 7마디, 고급은 9마디, 12마디 이상을 최고급으로 여긴다. 단, 마디가 많다고 좋은 부채는 아니고 귀한 부채로 여겨진다. 과거에 분죽은 제주도뿐 아니라 전라도의 오수, 순창, 남원 등에서 많이 나왔다. 1969년에 오수에 사는 사람이 좋은 분죽 발이 있어 가져다가 제작을 했으나 교통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채취와 운반이 매우 어려웠다. 다행히 라이선(합죽선장)이 받아 썼던 전라도 김제의 맹종죽 발에서 재료를 가져다 사용할 수 있어 이로부터 맹종죽으로 변죽을 만든 부채를 많이 제작하게 되었다. 합죽선은 부챗살을 대나무의 껍질로만 만든다. 반면 일본이나 중국은 부챗살을 대나무 속대를 가지고 만든다. 대나무 껍질은 수분을 안 빨아들이기 때문에 김동식 선자장이 만든 합죽선의 장점은 반영구성에 있다.

5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김동식 선자장은 80세의 고령이지만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다. 공방에서 전통 합죽선을 제작하고 기술을 전수하는 것 외에도 전시회, 강연회, 언론 출연 등으로 합죽선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부채에 관해 이야기할 때 김동식 선자장의 눈빛은 젊은이처럼 반짝였다.

“부채는 나의 삶이지요. 지금도 더 좋은 부채를 만들기 위해 고민합니다.”

2003년 전주시 인후동 가재미마을에서 삼천동으로 이사해 현재까지 동성공예를 운영하며 부채를 만들고 있는 선자장은 합죽선에 관련된 소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직하게 합죽선의 원형을 지키고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정직한 합죽선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이 합죽선이다’ 라고 알 수 있는 정교한 부채이지요. 정교한 제작 과정을 제대로 잘 전수하고 전수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접부채를 모두 합죽선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대충 만들어 합죽선이라고 하면 합죽선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원형을 바로 알고 그 토대 위에 시대에 따른 변형이 있어야 하지요.”

이처럼 제대로 된 합죽선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알리고 후대에 전하는 것이 66년째 합죽선을 만들고 있는 김동식 선자장의 바람이다. 현재 아들과 며느리가 각각 이수자가 되어 합죽선 제작의 전 과정을 배우고 있다(그림 Ⅲ-5). 김대성 이수자는 1970·80년대 아버지가 젊었을 때 만든 합죽선은 부채의 각이 칼 각처럼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부드럽고 완만하면서도 각이 살아있게 변했다고 한다.



<그림 Ⅲ-5> 이수자들과 작업하는 김동식 선자장

〈그림 Ⅲ-6〉의 부채는 김동식 선자장의 작품이다. 아래쪽의 부채는 크기가 52×30cm로 표정선을 재현한 것이다. 김동식 선자장이 만든 합죽선은 부채가 견고하고 만듦새가 뛰어나며 기계를 쓰지 않는 100% 수공이라 완성도가 높다. 또한 걸대가 힘있게 일자로 뻗어나가다가 완만하고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고 있고 균안이 두타워 손에 잡는 느낌이 묵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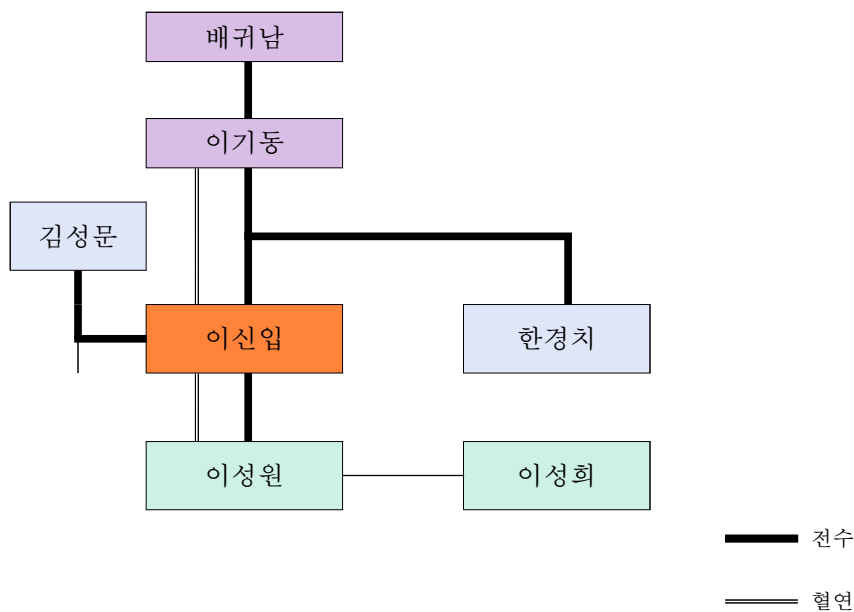
〈그림 Ⅲ-6〉 김동식 선자장의 합죽선  
출처: 김동식 선자장 소장

## 2) 이신입 낙죽장

이신입(1960년생) 낙죽장과의 면접을 통해 합죽선 전수 계보에 대해 조사하였다. 면접은 전주시 대성동에 위치한 자택이자 공방인 영진공예에서 2023년 9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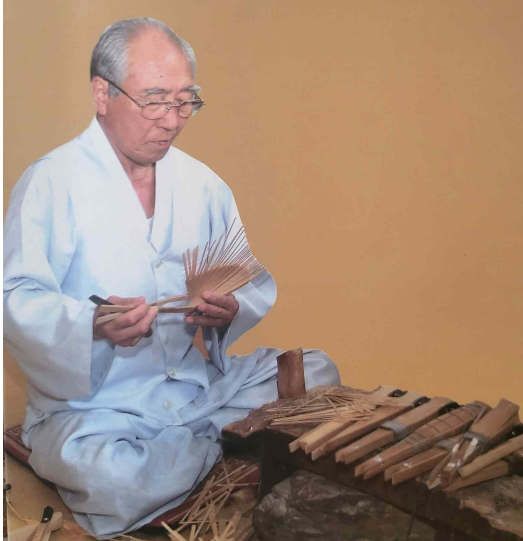
### (1) 계보

이신입 낙죽장의 합죽선 전수 계보는 <그림 III-7>과 같다. 그는 전수 계보로는 3대째이고 가계로는 2대째이다. 전수 1대인 배귀남은 전라북도 완주군 인후동 안골에서 합죽선을 제작했다. 이신입 낙죽장의 아버지 이기동(1930~2009) 선자장은 배귀남 밑에서 1948년에서 1953년까지 6년 동안 사사를 받아 합죽선을 만들었다.



<그림 III-7> 이신입 낙죽장의 계보

<그림 Ⅲ-7>에서 한경치는 이신입의 처남으로 1980년 부채공방에 입문하여 8년 동안 이기동 선자장에게 사사를 받았고 현재는 담양으로 이주하여 합죽선을 만들고 있다.



<그림 Ⅲ-8> 이기동 선자장  
출처: 이신입 낙죽장 개인 소장

이신입 낙죽장의 부친인 이기동 선자장(그림 Ⅲ-8)의 고향은 전라남도 장성으로 18세 때 우연히 전주에서 합죽선을 도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합죽선이 수출도 할 수 있는 전망 좋은 업종이라며 제작 기술을 배울 것을 권했다. 이기동 선자장은 배귀남에게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합죽선은 고급 부채인 만큼 배우는 과정도 여간 힘든게 아니었다. 그는 오두막집의 호룽불 밑에서 숯불을

피우며 일했는데 하루 종일 가부좌를 틀고 일을 하는 것은 보통 인내로는 견디기 힘들었다. 제대로 된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챗살을 만드는 골선방(초주방), 정련방, 때를 빼내고 빛이 나게 하는 광방, 합죽한 부채에 인두로 무늬를 새겨 넣는 낙죽방, 부채에 한지를 바르는 도배방, 부채의 목을 묶는 사복방 등 6방의 전 과정을 모두 거쳐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습득한 그는 1971년 전국관광민예품 경진대회와 산업디자인전, 전승공예전 등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1991년 대한민국 명장의 칭호를 받았고 1993년에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으로 최초로 지정되었다.

이신입 낙죽장(그림 Ⅲ-9)에게 어릴 때 기억 속의 집은 언제나 부채를 만드는 공간이었다. 이신입 낙죽장은 3대 독자이기에 가업을 이어 합죽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고되고 지난한 합죽선 제작이 싫어 몇 번이나 작업실을 떠나 다른 삶을 추구하였다. 그러한 아들을 묵묵히 기다린 아버지



<그림 Ⅲ-9> 이신입 낙죽장

이기동 선자장 덕분에 19세였던 1979년에 합죽선을 만드는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김성문 낙죽장에게 본격적으로 낙죽을 배우기 시작해서 최초로 2019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1호 낙죽장이 되었다. 그는 낙죽장이지만 어릴 때부터 부친에게 배운 합죽선을 제작해왔기 때문에 그의 합죽선은 낙죽 문양이 섬세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버지께서 부채를 만드는데 낙죽이 계속 밀려 합죽선을 완성할 수 없었어요. 김성문씨가 낙죽을 잘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모두 맡기니 일감이 밀릴 수 밖에요. 아버지께서 ‘낙죽을 배워라’ 그러시더라구요.”

## (2) 전승

낙죽(烙竹)은 인두를 불에 달궈 대나무 표피에 장식적인 그림, 무늬, 글씨를 새기는 기법이다. 예로부터 부채, 화살대, 칼자루, 병풍, 대나무필통 등에 활용되었던 기술로 특히 합죽선에 가장 많이 쓰였다.<sup>104)</sup>

이신입 낙죽장은 평소 아버지 이기동 선자장에게 합죽선을 만드는 방법을 익혔다. 그림을 잘 그렸던 그는 19세 때 아버지의 권유로 김성문 낙죽장에

104) 공예 트렌드 매거진, 손으로 공예로, 인두의 열기로 전통의 멋, 아로새기다, 2023. 06, pp.6-7.

게 낙죽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당시 부채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배가시켜주는 낙죽을 하는 사람들은 사라져갔고 전라북도 전통 낙죽의 계승이 그대로 끊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이기동 선자장의 길이 아닌 ‘낙죽’의 길로 기꺼이 접어들어 합죽선과 낙죽의 장인이 된 것이다.

이신입 낙죽장은 화로에 숯으로 불을 피워 인두를 달구는 전통 낙죽 기법을 구사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극소수의 장인들만 하는 작업 방식이다. 낙죽에 맞춤형 온도를 찾는 것은 매우 힘들다. 불 가까이 인두를 가져가 열기를 가늠해야 하는데 이 감각을 익히는데 몇 년이 걸린다. 대나무의 미끄러운 표면에 농담(濃淡)을 표현해 내는 작업도 어려운 일이다. 인두가 식기 전에 목표한 무늬를 마무리해야하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 기술 중 하나이다.

“아버지는 조금이라도 완성도가 떨어지면 가차 없이 아궁이로 던져버리셨지요. 당시에는 화도 나고 아깝다고 생각해 아버지를 원망도 했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신념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4년 전부터 두 아들이 합죽선을 배운다 하여 가업과 전통을 잇게 되어 기쁩니다.”

이신입 낙죽장의 합죽선은 아버지 이기동 선자장의 작품(그림 III-10)과 많이 닮아 있다. 이신입 낙죽장의 작품은 걸대를 비교적 얇게 하여 손이 작은 사람도 편하게 쥘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걸대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면서 요철 형태의 굴곡을 두어 걸대를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부채의 무게를 줄이면서 상쾌한 울동감이 있다. 특히 걸대와 부챗살에 매화, 국화, 박쥐 등을 전통 낙죽 기법으로 섬세하게 그려 넣은 그의 합죽선은 낙죽으로 인하여 섬세하고 화려하다(그림 III-11).



<그림 Ⅲ -10> 이기동 선자장의 합죽선  
출처: 이신입 낙죽장 소장



<그림 Ⅲ -11> 이신입 선자장의 합죽선  
출처: 이신입 낙죽장 소장

## 2. 전주 합죽선 문화의 장인 계보

본 연구에서는 김동식 선자장, 노덕원 선자장과의 면접을 통하여 1950년대 이후 합죽선을 만들었던 환경을 비롯해 1960~19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의 장인들의 계보에 관해 조사하였다. 특히 작고한 합죽선 장인들의 성명, 직역, 거주지 그리고 전승 연계 현황에 대한 정보를 듣고 조사를 하였다. 면접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노덕원 선자장은 7월 17일에 1회 참가하였다.

합죽선을 만들려면 6개의 방을 거쳐야 한다. 이는 합죽선 제작 공정이 그만큼 전문적이고 여러 단계의 공정이 필요해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는 뜻이다. 1950년대 이후 활동했던 장인들은 6방의 기능자들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부채를 제작했고 서로 왕래하여 기술을 나누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부채의 수요가 많은 전성기였으나 1988년부터 값싼 중국 부채의 유입과 다양한 냉방 기기들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합죽선은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합죽선을 찾는 수요가 적어지면서 현업을 떠나는 장인들이 늘었고 남아있던 장인들도 고령화되었거나 작고하였다. 전수자가 없이 장인들이 사라지면 전문적인 기술도 함께 사라지게 되었다. 비록 문화재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과거와 현재의 합죽선 문화를 이어갔던 장인들 대한 기록은 없는 실정이다. 당연히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작고한다면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전주 지역에서는 매우 적은 수의 장인들만이 합죽선을 만들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무형문화는 사람을 통해 만들어지고 사용되며 전수된다. 유형의 결과물인 합죽선을 만드는 장인들에 대한 정보나 조사가 전무한 상태에서 일제강점기 이후로 활동한 부채(합죽선) 장인들을 파악하고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사료된다. 이들을 통해 전통 합죽선의 기술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면접을 통해 어느 지역에, 어떤 장인들이 모여 살며 합죽선을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 없어 기억을 바탕으로 응답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 1) 1950년대 이후의 장인들

전라감영에 소속된 선자청이 언제 사라졌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단오 절선을 공납하는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1920년대로 추정된다. 선자청에서 부채를 만들어 공납하던 외공장의 장인들은 일제강점기에 선자청이 있던 지금의 전주시 중앙동에 터를 잡았다. 당시 중앙동에는 부채를 도매하여 전국에 공급하는 중간상인 송지방(지금의 남문 근처)을 비롯하여 삼화상회, 무궁화 공예사 등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동 근처와 오거리에는 사복을 만드는 곳도 있었다.<sup>105)</sup>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 자본이 사라지고 중앙동이 발전하면서 부채 장인들은 전주 외곽지역인 인후동의 가재미마을(가재미골), 안골, 새터, 오목대, 용진면 선정리의 석소마을(석소리, 이하 석소마을)로 터를 옮겨 부채를 만들게 되었다. 특히 가재미마을과 석소마을은 그때부터 부채골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석소마을은 현재 전주시 우아동에 위치한다.

<표 III-1>은 1950년대 이후 전주지역에서 활동했던 작고 장인들의 명단을 조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장인들이 어느 지역에 살면서 합죽선을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

새터에서는 문준하, 배귀남을 중심으로 9~10 가구가 모여 부채를 만들었고 엄주원 선자장을 통해 엄대수 선자장에게로 기술이 이어졌다. 석소마을에서는 김동식 선자장의 외조부인 라학천 일가를 중심으로 부채를 제작했음을 볼 수 있다. 가재미골에서는 배귀남을 중심으로 장인들이 모여 부채를 만들었는데,

105) 부채박물관, <http://cafe.daum.net/umjaesufan>

이신입 낙죽장의 아버지인 이기동 선자장도 활동했다. 김동식 선자장은 가재미골에 살았고 석소마을 외가로 가서 일을 배웠다. 새터, 석소마을, 가재미마을, 오목대는 전주천을 끼고 삼각형 모양으로 흩어져 있었다.

<표 Ⅲ-1> 1950년대 이후 전주 지역의 합죽선 장인들

구분	성명	직역	활동지명	특징
1	남 궁	도배 <sup>106)</sup>	새터	1890년경 출생,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함
2	문준하	정련 <sup>107)</sup> , 초주 <sup>108)</sup>		1950~1960년대 활동함, 1960년대 말 사망함
3	권준하	도배		1890년경 출생,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함
4	김진옥	정련, 초주		1970년대 사망함
5	김동식	정련, 초주		1970년대 사망함
6	김성문	광 <sup>109)</sup> , 낙죽 <sup>110)</sup> , 사복 <sup>111)</sup>		광을 잘 내서 일감을 도맡아 함, 1990년대 사망함.
7	박창열	정련, 초주		김동식에게서 배움, 1970년대 중반부터 활동함, 1980년대 말 사망함
8	엄주원	정련, 초주		문준하에게 사사받음, 엄재수의 부친임
9	유홍순	낙죽, 광		1950년대부터 활동함, 1990년대 사망함
10	라경옥	정련, 초주, 도배	석소마을 (석소리, 아중리)	1860년대 출생, 김동식 선자장의 외증조부임
11	라학천	정련, 초주, 도배		1886년 출생, 1962년 사망함 김동식 선자장의 외조부임
12	라이선	정련, 초주		라학천 선자장의 아들임, 라이선, 라태순, 라태용은
13	라태순	정련, 초주		1960년대 말 사망함,

14	라태용	정련, 초주		라정옥은 2005년에 사망함
15	라정옥	정련		
16	김일권	정련, 초주		
17	김진권	정련, 초주		
18	배귀남	낙죽, 초주	가재미 마을 (가재미 골, 인후동)	이기동 선자장의 스승으로 1960년대 말 사망함
19	정윤석	정련, 초주		라학천에게서 배움, 1960년대부터 활동함, 2003년 경 사망함.
20	김정남	초주, 낙죽		배귀남에게서 낙죽을 배움, 1960년대부터 활동함, 2010년 경 사망함
21	김용구	초주		1980년대부터 활동함, 1995년 사망함
22	장태일	정련, 초주		노덕원의 처남임, 1965년 경 활동을 시작함, 1995년 사망함
23	이기동	정련		1930년 출생, 2009년 사망함, 배귀남에게 사사 받음
24	이석만	정련, 초주, 도배		오목대

106) 도배는 부챗살에 종이를 오려 선면을 붙이는 것이다.

107) 정련은 부채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108) 초주는 대나무를 자르고 쪼개 부챗살을 깎는 것을 일컫는데, 이것을 하는 방을 초주방 또는 합죽방이라 한다..

109) 광은 합죽선의 모양을 곱게 다듬는 것이다.

110) 낙죽은 인두로 부챗살과 걸대에 문양을 그려 넣는 것이다.

111) 사복은 부채 머리를 장식으로 고정하는 것이다.

<표 Ⅲ-1>의 내용을 통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자장들은 배귀남, 문준하, 라학천 등으로부터 합죽선 만드는 기술을 사사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작고한 장인들에 대한 문헌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본 연구의 면접대상자들의 응답에 의존하여 내용을 정리할 수 밖에 없었지만, 2인 혹은 3인의 응답이 같은 부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억도 응답자들이 고령이므로 더 시간이 지나면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료로 사료된다.

## 2) 현재의 장인들

<표 Ⅲ-2>을 보면 현재 고령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현업에서 물러난 장인들이 많다. 또한 그 기술을 잇는 이수자가 없는 경우 장인이 사망하면 그 기술도 그와 함께 사라지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노덕원, 차정수는 2022년까지 부채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으나 고령으로 현업에서 물러난 상태이고 전수자가 없다. 유충근, 이완생, 김경수도 전수자 없이 현업에서 물러나 그들이 지닌 기술도 함께 사라져가고 있다.

<표 Ⅲ-2> 현재의 장인들

구분	성명	직역	2023년의 활동 여부	특징
1	김동식	전 과정	○	1940년대생, 4대째 합죽선을 만들고 있음,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2	노덕원	골선, 정련	×	1930년대생, 이기동 문하에서 시작함, 1959~2022년 활동함
3	유충근	정련, 초주	×	1940년대생, 라태준, 김동식 문하에서 배움
4	이완생	정련, 초주, 도배, 낙죽	×	1940년대생, 1963~2020년 활동함

5	차정수	도배	×	1940년대생, 권준하 문하에서 시작 1958~2022년 활동함.
6	김경수	광	×	김성문의 아들임, 2000년경부터 활동함
7	박인권	전 과정	○	엄주원의 문하에서 시작함, 전북무형문화재 명예 선자장
8	박계호	전 과정	○	1970년대생, 박인권의 아들임, 전북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
9	박상귀	정련	○	엄주원의 문하에서 시작함
10	한경치	정련	○	이기동의 사위임, 전주에서 담양으로 이전해서 활동함
11	이신입	전 과정	○	1960년대생, 이기동의 아들임, 전북무형문화재 제51호 낙죽장
12	엄재수	전 과정	○	1960년대생, 엄주원의 아들임, 전북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
13	김대성	전 과정	○	김동식의 아들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14	장현정	전 과정	○	김동식의 며느리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15	김민후	전 과정	×	김동식의 손자임, 2021년부터 배우기 시작함, 2023년 군복무 중임
16	이성원	낙죽	○	이신입의 아들임, 전북무형문화재 전수자
17	이성희	낙죽	○	
18	엄창석	전 과정	○	엄재수의 아들임, 전북무형문화재 전수자

현재 전주에서 합죽선을 만들고 있는 장인들은 많지 않다. 국가나 시·도 무형문화재로서 선정이 되어 활동하는 장인들은 김동식 선자장, 이신입 낙죽장 외에도 엄재수 선자장과 박계호 선자장이 있다. 이들은 자녀들이 대를 이어 합죽선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 합죽선을 찾는 수요가 적어지다 보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자녀들이 전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엄주원은 1997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으로 선정되었다. 엄재수 선자장은 엄주원 선자장의 아들로 1989년에 가업을 계승했다. 2012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으로 선정되었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경로 37에서 부채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옛 선자장들의 유품과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채 복원에 힘쓰고 있다. 현재 아들 엄창석이 3대째 가업을 계승하고 있다.<sup>112)</sup> 박인권 선자장은 1978년 엄주원 선자장에게 합죽선 기술을 사사 받았다. 2013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으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의 아들 박계호 선자장은 1987년 박인권 선자장에게 전수받았고 2019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전주 완산구 경기전길 93 전주부채문화관에서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 3. 전주 합죽선 문화의 변화 실태

#### 1) 합죽선의 형태와 재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근·현대를 지나며 합죽선은 변화가 있었다. 형태와 재료의 변화를 <표 III-3>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합죽선은 크기가 30cm 정도였으나 19세기 말 표정선의 영향으로 크기가 24~26cm로 작아졌

112) 출처: <https://blog.naver.com/jeonjumjhand/223219371072>

다. 현재는 크기가 다양해졌다. 원래 합죽선의 몸통 형태는 가운데가 부드럽게 들어간 곡선이어서 손에 쥐기가 편한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 조악한 대를 이용하여 걸대를 만들고 미숙한 기술로 몸통의 곡선이 사라지고 일직선 형태의 부채가 합죽선이라는 이름으로 양산되었다. 현재는 합죽선의 곡선을 제대로 찾고자 하는 장인들의 노력으로 곡선 형태가 되살려졌다. 또한 합죽선을 만드는 정교한 기술은 무형문화재 지정에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 이는 전통 제작 기술의 전수에 도움이 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표 III-3〉 합죽선의 크기, 형태 및 재료 변화

구분	조선시대	1950~1980년대	현재
크기	30cm	24~26cm로 왜소해짐	다양화
몸통의 형태	곡선	곡선이 사라짐	곡선
선두 재료	물소, 한우의 뿔이나 뼈, 떡감나무, 대추나무, 오동나무 등	소의 다리뼈, 베이클라이트	뿔, 나무
사복 재료	백동, 황동, 은합금	백동, 황동, 스텐, 양은, 신주	스텐과 양은은 사용 안함
걸대 재료	분죽	분죽, 맹종죽	맹종죽
도배 재료	참쌀풀	참쌀풀, 도배풀	도배풀
합죽풀	민어부레풀과 아교	민어부레풀과 아교, 합성풀	민어부레풀과 아교

부채의 머리 부분인 선두는 나무나 뿔로 만들어졌다. 나무로는 떡감나무, 대추나무, 오동나무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특히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고 하여 몸에 지니고 다녔다.<sup>113)</sup> 뿔의 경우 물소의 뿔은 구하기 힘들어 소의 다리뼈를 사용하였다. 소의 다리뼈가 곰탕 등의 식재료로 공급되

113) 국립무형유산원(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민속원, p.113.

면서 재료로 부족해지자 1980년대 중반에 베이클라이트<sup>114)</sup>란 재료를 사용하여 머리 부분을 값싸게 만들기 시작했다(그림 Ⅲ-12). 이는 부채 머리의 손잡이 부분을 부채 목의 각도에 맞는 곡선으로 다듬을 때 쓰는 도구인 짜귀<sup>115)</sup>(짜구, 자귀)의 사용기법을 실전(失傳)시켜 연장 자체도 사라져 버리게 되고 합죽선의 품질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림 Ⅲ-12〉 선두의 재료  
 (위의 왼쪽부터 쇠뿔 2개, 물소뿔 2개, 떡감나무 3개,  
 아래는 베이클라이트 4개)  
 출처: 부채박물관, <http://cafe.daum.net/umjaesufan>

사복은 접선의 중심 하단에 각각의 살을 고정시키는 고리인데 사복이라고도 하며 전통적으로 백동과 황동을 사용하였다. 사복은 백동이나 황동을 두드려 고리를 만들고, 고리에 선추를 매달 수 있게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림 Ⅲ-13〉에서 1950~1970년대의 사복을 자세히 보면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두들겨 방자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복의 재료는 시대에 따라 많이 변했는데 1970년대에는 값싼 스텐(스테인리스강)으로도 만들었다. 그러나 스텐의 강도가 너무 세서 제작하기가 어려워지자 잠시 양은으로

114) 베이클라이트(BAKELITE)는 플라스틱 단연 절연 재질의 화합합성물질이다.

115) 짜구(자귀)는 평면을 다듬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통 도구이다.

도 사북을 만들었는데 강도가 너무 약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1950-1970년대 사북  
(왼쪽부터 황동1개, 백동1개)



1970-1980년대 사북  
(왼쪽부터 알루미늄 1개, 스텐 2개, 신주 3개)  
〈그림 III-13〉 사북 1

출처 : 김동식 선자장 개인 소장



현재의 사북  
(왼쪽부터 백동 1개, 황동 1개, 백동 1개, 신주 2개, 은 1개)  
〈그림 III-14〉 사북 2

출처 : 김동식 선자장 개인 소장

이후 값싸고 강도도 적당한 신주가 나왔고 현재는 은합금, 백동, 황동, 신주 등으로 사북을 만들고 있다(그림 III-14). 사북을 보면 오래된 부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사북을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어 망치 자국이 있고 끼우

기 좋게 끝이 뾰족하기 때문이다. 전에는 사북방에서 사북을 만들었으나 지금은 장식 장인들에게 금형을 의뢰해서 대량으로 만든다. 이는 직접 손으로 두들겨 만들기도 하지만 단가가 높기 때문이다.



<그림 Ⅲ-15> 분죽



<그림 Ⅲ-16> 맹종죽

합죽선의 부챗살은 왕대의 걸대를 얇게 깎아 2장을 민어의 부레풀과 아교를 섞은 것을 이용하여 붙여 접착하였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부채의 걸대(변죽)는 거제도를 중심으로 재배되었던 맹종죽(그림 Ⅲ-16)을 1980년대부터 사용하면서 변화된 부분이다. 이전의 부채에는 걸대의 마디가 세 개, 다섯 개, 일곱 개를 넘지 않는 분죽이 사용되어져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나, 맹종죽이 사용되면서부터 마디는 아홉 개부터 수십 개에 이르렀고 마디 수가 많은 것을 가격을 높이 치게 되었다. 맹종죽으로 부채 걸대를 만들면 물러서 앞이 벌어진다고 하지만 다년생 맹종죽을 쓰면 그런 일이 없다. 대나무는 오래 묵으면 지름의 변화는 거의 없으나 조직이 치밀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분죽(그림 Ⅲ-15)은 숨 같은 흰 얼룩무늬가 있는 대나무로 제주도 한라산에서 자라는 것으로 일명 노죽(蘆竹), 솜대라고 한다. 분죽은 왕대에 비해 조직이 치밀해서 가늘게 쪼개 쓸 때는 좋으나 마디 사이 간격

이 좁아 부채 속살에 쓰이지 못하고 조선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부채 걸대로 주로 쓰였다.<sup>116)</sup> 맹종죽은 죽순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품종으로 비를 맞으면 빨리 자란다. 다 자랐을 때 크기는 크지만 마디가 왕대보다는 작고 많아서 합죽선의 걸대 치장에 많이 쓰인다. 분죽과 맹종죽은 마디의 모양에서 차이가 나는데, 마디 대에 쌍거풀 모양의 골이 있으면 분죽이고 골이 없이 마디만 있으면 맹종죽이다. 과거에 합죽선은 선비들의 개인적인 애장품이어서 장례를 치를 때 부장품으로 묻곤 해서 남아있는 유물이 거의 없다. 1980년대까지의 부채를 보면 걸대가 분죽인 것을 알 수 있다. 점차 마디가 많은 것을 선호하면서 현재는 주로 맹종죽이 합죽선의 걸대로 사용되고 있다.

## 2) 합죽선의 제작과 도구

〈표 III-4〉 합죽선의 작업 방법과 도구의 변화

구분	조선시대	1950~1980년대	현재
낙죽작업	인두	인두나 쇠불도장	인두, 전기 인두나 쇠불도장
선두 부분 고정	활비비, 송곳	탁상드릴	활비비, 탁상드릴
작업용 칼	낮칼, 합죽칼	낮칼, 사포	낮칼, 합죽칼, 사포
고정용 못	대나무못	볼트, 너트	대나무못, 볼트, 너트
부레풀 작업 후 고정 끈	삼 줄, 벚집	나일론 줄, 나일론 섞인 면 줄	삼 줄, 나일론 줄

작업 방법에 있어서 과거에는 6방의 기술자들이 각기 분야를 나누어 합죽선

116) 부채박물관, <http://fanmuseum.co.kr/>

을 완성했으나 지금은 거의 전 과정을 한 사람이 하고 있다. 도구는 해방 이후에 많은 변형이 있었으나 현재는 전통적인 도구와 새로운 것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III-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낙죽작업에 있어서는 화로에 숯으로 불을 피워 인두를 달구는 전통 낙죽 기법 대신 전기인두나 전기 쇠도장을 사용하게 되었다(그림 III-17). 이는 편리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방법이지만 전통 낙죽의 은은하고 적절한 농담(濃淡)을 표현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두와 전기인두



전기 쇠도장

<그림 III-17> 합죽선 제작 도구 1

선두 부분을 고정할 때는 활비비<sup>117)</sup>와 송곳을 이용하여 부채의 머리에 구멍을 뚫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오늘날에는 전기드릴을 사용하기도 한다. 작업용 칼로는 낫칼<sup>118)</sup>과 합죽칼<sup>119)</sup>을 사용하여 정련을 해왔다. 낫칼은 대나무의 껍질을 벗기거나 부채의 거친 살을 깎고 다듬는 과정에서 사용하며 대패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합죽칼은 대나무의 곡선에 맞춰 칼날이 평평치 않고 양쪽 칼날 부분이 바깥쪽으로 반원형을 띠게 구부러져 있는 것으로 부채

117) 활비비는 꼬인 줄의 풀림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는 전통 도구이다.

118) 낫칼은 손잡이가 양쪽에 달린 깎기 전용 칼의 종류이다.

119) 합죽칼은 부채살을 깎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칼이다.

살을 얇게 깎아내기에 용이하다. 고정용 못인 대나무못(암못과 솥못)은 부채 목 부분에 넣는데 부채의 머리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그림 Ⅲ-18). 민어 부레풀 작업 후 고정끈인 삼 줄이나 벗집으로 부골<sup>120)</sup>과 변죽, 수침목<sup>121)</sup>과 등<sup>122)</sup>을 차례로 놓고 등과 변죽을 밀착시킨다.



활비비와 송곳



대나무로 만든 암못과 솥못



짜구(자귀)



정련 낫칼, 기중 낫칼, 합죽칼  
(위의 왼쪽부터)

<그림 Ⅲ-18> 합죽선 제작 도구 2

출처: <https://www.nihc.go.kr/>

120) 부골은 부채 속살과 변죽을 결합할 때 변죽 안에 들어가는 대나무이다.

121) 수침목은 부채 머리 변죽 부분에 아름답게 보이도록 넣은 까만 선으로 과거에는 먹감나무의 검은 부분을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검게 물들인 버드나무를 사용한다.

122) 등은 부채의 손잡이 부분이다.

김동식 선자장과 이신입 낙죽장은 잘못 사용되었던 합죽선 도구와 재료들을 원래의 것으로 돌이켜 바르게 사용하고, 현대에 맞는 전기 쇄도장과 같은 새로운 도구들로 전통의 합죽선을 재현하고 그들만의 새로운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들과의 면접에서 언급된 오늘날 합죽선 제작의 어려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죽선의 재료로 적합한 대나무(맹종죽)를 구하는 것이 점차 어렵다. 부채를 만들기에 적합한 마디가 있는 대나무는 적어도 7개월에서 2년 정도 길러야 하는데 그런 대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주로 식용을 위한 죽순을 채취하기 위해 2~3개월 만에 대나무를 베어내기 때문이다. 부챗살을 붙일 때 쓰는 풀의 재료 중의 하나인 민어 부레를 구하는 것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민어 부레를 식용으로 먹기 시작하면서 귀해지고 값도 비싸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 합죽선 재료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대책이 제도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장인들이 모여 함께 제작하고 만든 작품을 전시하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합죽선에 대한 기술 전수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국가무형유산원이나 박물관들은 합죽선 제작과 교육을 위한 전문화된 작업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예의 전승체계는 전통적인 도제식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 전승과정의 표준화와 체계화도 요구된다. 전통 합죽선을 만드는 과정과 기술은 배우는 과정이 어렵기도 하지만 생계가 힘들기 때문에 평생의 직업으로 기술을 전수 받으려는 경우가 드물다. 가게나 사제 간 계승을 막론하고 장인이 재능있는 제자를 만나 기술이 더 정교해지고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전승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셋째, 합죽선과 같은 전통공예에서 연장과 재료를 잘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기계와 연장이 보급되면서 과거의 연장과 그 사용법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무형문화재 지정의 경우 재래식 연장과 사용

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인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사라져가고 잊혀질 수 있는 전통의 연장과 재료를 과학적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재래식 연장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좀 더 손쉽고 효과적인 현대식 공구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원형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변형도 의미가 있으므로 전통과 현대의 연장에 대한 연구와 기록화 작업이 필요하다.

## IV. 결론 및 제언

문화유산이 소중한 이유는 단지 오래되어서만은 아니다. 문화유산은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문화가 축적되어 오늘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화유산을 제대로 이해하는 작업은 우리의 삶의 뿌리를 돌아보는 일이다. 합죽선은 유물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이를 사용했던 사람의 사후에 함께 매장을 하거나 전쟁과 같은 어지러운 시대를 지나며 훼손되고 없어졌기 때문이다. 전통문화는 오랜 역사와 함께 유지, 전승되어 온 것으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등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문화 속에 존재한다.<sup>123)</sup>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승되는 살아 있는 삶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sup>124)</sup>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해 전주 합죽선에 대한 문화적 고찰을 이행하였다. 그 결과, 조선 시대 부채는 공물로 조정에 상납되었고, 단오를 맞아 국왕이 하사하는 은혜를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부채 공급을 위해 공조의 경공장과 전라.경상 감영에는 선자청을 두어 관리를 하였다. 합죽선의 등장 시기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정조 18년(1794) 처음으로 실록에 그 명칭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18세기로 추정할 수 있다. 합죽선은 접선의 일종이지만 일반 접선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 접선은 부챗살을 대나무의 속대를 이용하여 만드나 합죽선은 그 이름대로 얇게 떠낸 2장의 대나무 겉대를 민어의 부레풀과 아교를 섞어 만든 풀을 이용하여 붙여서 만든다. 이렇게 만든 부챗살은 습기에 강하여 부채 선면만 갈아주면 300년 이상도 쓸 수 있고 탄성이 좋아 같은 강도에도 바람이 더 세다. 이러한 합죽선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라감영이 있던 전주에서 조선을 대표하는 접선이 되었다.

123) 주영애(2015), 전통생활문화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실천도에 관한 연구, 유학연구 33, p.472.

124) 김한샘(2015), 주한 외국인의 전통문화체험 실태와 동기 및 만족도,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주 합죽선 문화가 어떻게 전승되었고 변화되어왔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주의 김동식 선자장과 이신입 낙죽장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전통 합죽선의 특징, 기술의 습득 배경, 전수 계보와 전승 현황을 살펴보았다. 합죽선을 만드는 장인인 선자장과 낙죽장을 연구의 중심에 두고 그들이 가진 전통 지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전통공예 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승되고 있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합죽선은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세밀하여 기술을 배우기가 쉽지 않다. 전통공예 기술은 대부분 도제식 교육에 의해서 전승되고 있다. 국가나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예분야의 경우, 도제식 교육은 주로 부자, 모자, 친인척 간의 혈연관계에서 계승이 이루어진다. 이런 점은 전통공예의 전수의 폭을 넓히는데 있어 한계가 되고도 있다. 김동식 선자장과 이신입 낙죽장의 기술도 가계 계승으로 전승되고 있다. 선자장들은 각각 개인의 공방을 운영하는데 공방과 주거공간이 함께 있는 형태였고 6방의 전 과정을 거의 혼자서 하고 있었다. 일반인들은 합죽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그 수요도 많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재료 공급, 작업환경, 경제적인 문제로 합죽선의 명맥을 잇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선자장과 낙죽장은 합죽선의 원형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전래의 도구들을 복원해 사용하면서 현대의 새로운 도구들도 제작 과정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1950년대 이후 전주지역에서 활동했던 장인들의 계보도 조사하였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80대의 고령이어서 시간이 더 지나면 기억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문화를 이어가는 것은 유형의 문화재가 아니라 무형의 문화재, 즉 사람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사라져 갔다. 그러나 세미하게나마 그 맥이 이어져 온 것은 그 업에 종사했던 이름

이 알려지지 않은 장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합죽선도 마찬가지였다. 국가나 시·도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극소수의 합죽선 장인뿐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많은 장인들이 존재했었다. 전주 외곽의 마을들에 거주하며 부채를 만들었던 장인들은 이제 거의 작고하였고 현재 전주에서 부채를 만드는 장인들의 수는 손에 꼽을 만큼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어떤 장인들을 통해 합죽선 기술이 이어져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구생태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합죽선은 오래 사용하여도 부챗살이 떨어지지 않으며 선면만 갈아주면 대를 물려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up>125)</sup>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물건이 아니라 재활용이 되는 것이다. 또한 많이 만들어 소비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자신에게 가치있는 것, 나만의 것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라져가던 장인들의 손길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 수제품은 기존제품에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좋은 품질과 독특한 창조성을 배경으로 장인들을 통해 재탄생되고 있기 때문이다.<sup>126)</sup>

결론적으로 전주 합죽선 문화가 현대에도 활발하게 이어지려면 문화유산으로서 합죽선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남아 있는 합죽선 문화의 전승과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후속 논문에서는 지속가능한 한국문화유산의 일환으로, 합죽선이 활용되기 위한 방안 모색과 관련된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25) 국립무형유산원(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민속원, p.181.

126) YTN, 더 메이커스, 2부 생각하는 손, www.ytn.co.kr

## 참 고 문 헌

### <고문헌>

매천야록  
양촌집  
열양세시기  
임원경제지  
경국대전  
조선왕조실록

### <단행본>

국립무형유산원(2017),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민속원.  
금복현(1990), 전통부채, 대원사.  
이동희(2016), 꽃심을 지닌 땅 전주-전주 한지와 부채, 전주역사박물관.  
장경희(2002), 유럽과 동아시아부채(조선시대 부채와 부채장인), 화정출판사.  
주영애 외(2018), 생활문화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한국생활문화연구, 한국학술  
정보.  
최상수(1981), 한국 부채의 연구, 정동출판사.

### <논문>

강현모(2005), 부채의 활용에 대한 민속교육적 접근, 비교민속학 30,  
pp.439-491.  
국민희(2022), 전주지역 무형문화재 활용방안,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김동영(2021), 18~19세기 대구 지역의 장인 직역 파악과 변화 양상: 선자장을

-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삼대자(1985), 부채의 기원과 변천, 미술자료 36, pp.25-44.
- 김상원(2018), 전통공예 전승과 활성화 정책에 대한 연구: 국가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룡(2005), 부채의 한국 문학적 심상, 한국문화학 2, pp.19-37.
- 김한샘(2015), 주한 외국인의 전통문화체험 실태와 동기 및 만족도,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혁(2007), 조선시대 지방관의 선물정치와 부채, 영남학 15, pp.97-142.
- 김혁(2010), 조선후기 단오부채 절선의 생산과 가치 순환, 고문서연구 36, pp.121-163.
- 심호남(2017), 조선전기 부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46, pp.173-193.
- 신희경(2005), 우리나라 공예문화상품의 특성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1, pp.96-108.
- 엄재수(2019), 한국 전통 부채의 역사적 고찰 및 디자인 접근에 관한 연구: 칠접선 복원과 현대 디자인 적용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미일(2002),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서 정상의 길: 백남신·백인기의 자본축적과 정치 사회활동, 역사와 경계 57, pp.121-157.
- 이진우(2018), 무형문화유산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정(2021),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치창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돈희·로저 L. 자넬리(2005), 무형문화재의 전승실태와 개선방안, 비교민속학 28, pp.437-455.

- 임재해(2007), 무형문화재의 가치 재인식과 창조적 계승, 한국민속학 45, pp.237-285.
- 임재해(2008),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방향의 재인식(2008), 비교민속학 19, pp.439-491.
- 장경희(2022), 조선시대 왕실용 부채와 선장(扇匠)의 직역 변화 및 제작실태, 동방학 47, pp.221-250.
- 주영애(2015), 전통생활문화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실천도에 관한 연구, 유학연구 33, pp.471-496.
- 천진기(2017), 전통 공예기술의 전승체계에 관한 현장적 접근, 한국민속 66, pp.239-258.
- 한국지역사회연구소(1998), 합죽선과 함께 산 반백년 인간문화재 이기동, 지역사회 30, pp.80-87.
- 함한희·정성미(2012), 전라북도 무형문화유산의 목록화와 현황 분석-ICHPEDI 자료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22, pp.169-200.

<인터넷 사이트>

- 간송미술문화재단 <http://www.kansong.org/>
- 국립무형유산원 <http://www.nihc.go.kr/>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 국립무형유산원 디지털 아카이브 <https://www.ihc.go.kr/>
-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 매일일보 <https://www.imaeil.com/>
- 부채문화관 <http://www.jeonjufan.kr/>
- 부채박물관 <http://www.fanmuseum.co.kr/>
- 전주공예품전시관 <https://www.jeonjucraft.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encykorea.aks.ac.kr/>

<http://www.ytn.co.kr/>

<https://blog.naver.com/fanarchive/223196151361>

<https://blog.naver.com/havfun48/221860199828>

<https://blog.naver.com/nobliancom/222838550820>

<https://blog.naver.com/yaniaO>

<http://cafe.daum.net/umjaesufan>

# ABSTRACT

## Research on the transmission and change of Jeonju Hapjukseon culture

Chang, Suegyoung  
Korean Cultural Contents Major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And Arts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study the transmission and changes of Jeonju Hapjukseon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reexamining Hapjukseon, one of the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s representing Jeonju. For this purpose, from December 1, 2022, to October 30, 2023, historical materials, books, papers, newspapers, domestic museums (e.g., National Museum of Korea, Fan Museum), and libraries (e.g., National Library of Korea) related to fans will be collected. We conducted a data survey and conducted a cultural review of Hapjukseon. In addition, an interview was conducted from July 17, 2023, to October 30, 2023, focusing on Kim Dong-sik Seonjajang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28) and Lee Shin-ip Nakjukjang (Jeonbuk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51) who live in Jeonju. We studied how culture has been transmitted and changed. In addition, through interviews, we also identified Hapjukseon craftsmen who had been active in the Jeonju area since the 1950s.

First, as a result of conducting a cultural review of Jeonju Hapjukseon based on literary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folding fan was called Danojeolseon and was a gift given by the king to his subjects. For this purpose, a central factory was established in Gongjo, and a Seonjacheong was established in Jeolla-do and Gyeongsang-do to have the Seonjajang produce and donate fans. In particular, among the fans, the folding fan was not something that could be purchased in the market. However, it could only be received by donating it to the government and receiving it as a gift from the king under the name of Danojeolseon. The name of Hapjukseon, one of the folding fans, first appeared in the Annals of King Jeongjo in 1794, so it can be assumed that it was built in the mid-18th century. The difference between Hapjukseon and folding fans lies in the ribs of a fan. The ribs of the regular folding fan are made from the inner part of the species of thick-stemmed bamboo. However, in the case of Hapjukseon, it is made from the outside part of the species of thick-stemmed bamboo. Moreover, it is made by attaching two thinly sliced bamboo with a paste made by mixing croaker's bladder glue and glue. When made in this way, it is resistant to moisture and can be used for a long time, and the elasticity of the blades improves, increasing the strength of the wind. Afterwar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ur unique traditional culture was destroyed through colonial policies, and the fans were no exception. However, Hapjukseon remained synonymous with Joseon fans due to the sophistication and complex technology of the making process, and Hapjukseon of Jeonju, in particular, was famous throughout the country.

Next, an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on the transmission and change aspects of Jeonju Hapjukseon culture. First, regarding the genealogy and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Seonjajang and Nakjukjang, who currently make Hapjukseon, are designated a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assets and city/provincial intangible cultural assets. We were receiving support and training from those who completed and continued training. Most of them passed down the art of making Hapjukseon through their families.

Second, the genealogy of craftsmen who continued the Hapjukseon culture

was investiga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Korean War, traditional crafts were often cut off or distorted. The current Jeonju Hapjukseon culture was brought on by many anonymous craftsmen who have been active since the 1950s, so organizing and recording their names and genealogies was meaningful.

Third, in light of the changes in Hapjukseon culture, it wa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continue the legacy of Hapjukseon due to material supply, work environment, and economic issues. However, craftsmen who make Hapjukseon, including Seonjajang and Nakjukjang, are trying to find the original form of Hapjukseon, and while restoring and using traditional tools, they are also using new modern tools according to the production process.

As mentioned above, Jeonju Hapjukseon is being passed down through craftsmen who are an intangible culture, and changes are also taking place through them. In the future, Hapjukseon will not be a relic of the past, but a Korean cultural heritage that must be continued in present life.

## 부 록

[부록 1] 연구동의서

[부록 2] 무형문화재 합죽선 장인의 계보와 전승 면접지

[부록 3] 1950년대 이후와 현재의 합죽선 장인에 관한 면접지

[부록 1] 연구동의서

연구동의서

연구 제목: 전주 합죽선 문화의 전승과 변화 연구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전주 합죽선 문화의 전승과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합죽선의 특징과 제작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전승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본 연구에 응답하시는 참여자의 정보와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는 동안 면접 내용을 녹취하고 기록함을 말씀드리며 연구 참여의 중단에 관한 결정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과 진행에 동의하시면 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한국문화콘텐츠전공 석사과정  
연구자 : 장수경  
지도교수 : 최배영  
E-mail : piona2016@naver.com

본인은 연구 참여에 관한 위의 내용을 읽고 숙지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한 본인은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면접 시 응답 내용의 녹취 및 기록과 연구 내용을 기술하는 논문에서 실명을 사용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2023년 7월 일

연구 참여자 : (인)

[부록 2] 무형문화재 합죽선 장인의 계보와 전승 면접지

○ 무형문화재 합죽선 장인의 계보에 대한 질문

- 이름과 생년, 직함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국가무형문화재 128호)
- 언제, 어디서 출생하셨는지요?
- 언제, 어떤 계기로 합죽선 기술을 배우게 되셨는지요?
- 누구에게 배우셨는지요?
- 합죽선을 가르쳐주신 분들의 계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 관련된 이수자와 전수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 합죽선 전승에 대한 질문

- 처음 합죽선 기술을 전수 받았을 때는 어떤 합죽선을 만드셨나요?
- 합죽선을 처음 배울 때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본인의 활동 시기(예: 1960년대)에 합죽선을 만드는 환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본인의 합죽선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 합죽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거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예: 형태와 재료, 제작과 도구)
- 앞으로 어떤 합죽선을 만들고 싶으신지요?
- 현재 무형문화재로서 어떻게 기술을 전수하고 있으신지요?
- 합죽선 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부록 3] 1950년대 이후와 현재의 합죽선 장인에 관한 면접지

- 1950년대 이후에 활동했던 합죽선 작고 장인들에 대한 질문
  - 그분들의 성명, 출생 년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 그분들은 당시 어디에 사셨는지요?
  - 그분들은 어떤 분야를 담당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그분들은 언제 작고하셨는지요?
  - 그분들의 기술은 누구에게로 전수되었는지요?
  - 국가나 시도의 무형문화재로 선정되지 않은 장인들에 대한 조사나 기록자료가 있는지요?
  
- 현재 활동하는 합죽선 장인들에 대한 질문
  -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장인들의 성명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그분들의 합죽선 전수 계보는 어떻게 되는지요?
  - 그분들은 합죽선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전수하고 있는지요?